[UCI]I804:24011-200000233235

2006년 2월

교육석사(체육교육)학위논문

축구 경기 규칙의 시대별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 육 교 육 전 공

이 병 권

2006년 2월
교육석사(체육교육)학위논문

축구 경기 규칙의 시대별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

Investigation on the historical change of football play rules

2006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 육 교 육 전 공

이 병 권

축구 경기 규칙의 시대별 변천과정에 대한고찰

지도교수 : 김 홍 남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5 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 육 교 육 전 공

이 병 권

이병권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2005년 12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2

3. 선행연구의 검토 ····· 3

4. 연구의 제한점 ····· 3

Ⅱ. 이론적 배경 ····· 4

1. 축구의 유래 ····· 4

2. 사커(SOCCER)의 어원 ····· 5

3. FIFA의 탄생 ····· 6

Ⅲ. 연구 방법 ····· 9

1. 시대 구분 ····· 9

2. 자료 수집 ····· 9

3. 연구의 절차 ····· 10

Ⅳ. 축구경기 규칙의 변천과정 ····· 11

1. 최초의 축구 경기규칙 ····· 11

2. FIFA 설립 전 (초기 - 1903년) 경기규정 ····· 13

3. FIFA 설립 후 (1904 - 2002년) 경기규정 ····· 17

4. 최근의 축구 경기규칙 ····· 26

5 2002년 개정되고 수정된 경기규칙 ····· 54

Ⅴ. 결론 및 제언 ····· *62*

1. 결론 ····· 62

2. 제언 ····· 65

참 고 문 헌 ····· *66*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연구의 절차 ····· *10*

ABSTRACT

Investigation on the historical change of football play rules

Lee Byung Guen
Advisor : Prof. Kim hong-nam Ph.D.
Major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find out historical meanings of football playthrough seeing change of play rules – how the rules has been changed, what the change has made and result in.

The period of study is divided into two branches – one is before the FIFA foundation, the other is after the FIFA foundation. The study shows play rules before FA association set basic rules in 1863, rules from representatives of 11 football clubs in London between 1863 and 1903, play rules after FIFA was made between 1904 and 1929, and football rules of World Cup event held every 4 years under the control of FIFA from 1930 to 2002 or after.

Before the FIFA was established (~ 1903), football was a kind of play not a sport as it is now. At that times, football as a sort of play was played in Schools or large empty grounds so some certainroles such as the number of players, size of ground and a referee didn't have restriction and was only the third factor. The plays followed voluntary restraint.

After FIFA had been organized (1904 ~ 2002) and FIFA was established in 1904, soccer was officially adopted as a item in London Olympic Games and played internationally. In 1913 FIFA became a member of IFAB and it made FIFA be powerful.

The transition of soccer play rules demonstrated that a play came to go through some stage of sport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game rules made soccer be known the world over.

These change was encouragement to create World Cup tantamount to Olympic Games as well asan important role to bring development of all sports. To be an international football game and make it better,we need to find out right play rules than thoughtless revision only for popularity. This must be a way to get interested in football games from people and be one of the most popular sport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스포츠 가운데 인기 있는 종목이 축구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도 다른 스포츠 종목보다 인기 있는 종목으로서 꾸준히 인식되어 왔고, 이에 따라 축구 인구도 상당히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보급도 잘 되어왔다. 축구는 인간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고른 신체적 발달과 협동심, 창의력 등을 개발해서 사회성 함양에 크게 기여하며 정서적 발달에도 도움을 주고 동시에 페어플레이 정신을 기르는 스포츠맨의 수련 종목으로도 적합한 운동이며 기초 기술만 습득하게 되면 누구나 신체적 특성에 관계없이 흥미를 갖고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종목이기 때문에 범세계적으로 대중화된 스포츠라 할 수 있다(박두균, 1989)라고 했으며 역시 축구는 약 20억의 인구가 즐기며(윤형근, 1982)단일 종목으로 올림픽과 쌍벽을 이루는 월드컵 축구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제전으로 약 20억의 축구팬들의 시선을 집중시켜 흥분과 열기로 전 세계를 들끓게 한다(스포츠서울, 1989.5.30)라고 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올림픽 경기나 월드컵 대회 같은 주요 국제경기는 전세계의 관심 속에 다른 어떤 경기나 행사보다도 높은 시청률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며, 축구경기만이 보여줄 수 있는 멋진 득점 장면이나 기술 등은 대중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겠다(이석원, 1990).

이처럼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종목인 축구 역시 스포츠로서 일정한 신념과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로서의 규정이 있다. 여기서 제도의 역할에 대해서 강동원 (1992)은 인간의 체육활동은 기본적으로 당대 인간과 사회의 문화적 산물이라고 전제하고, 체육사에서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할 부분은 단순히 개별 인간의 신체적 활동상이 아니라, 사회화, 제도화된 체육활동의 형태와

그 성격에 대한 연구라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체육활동은 제도화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축구 역시 인간의 체육활동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축구규칙은 제도화의 한 부분으로서 포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축구 경기규칙이 영국에서 성문화(成文化)된 1863년을 기점으로 하여 살펴 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경기규칙의 변천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축구경기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규칙의 흐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면,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멕시코에게 이기고 있던 경기를 한 선수의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인한 퇴장으로 역전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규칙은 축구경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축구경기 규칙의 변천에 관한 고찰의 필요성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축구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축구 경기규칙의 변천과정은 축구의 기술이 날로 향상되는 것과 동시에 심판들의 경기운행 방법과 선수들의 반칙행위 등이 축구경기 역사와 같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을 바탕으로 축구 경기규칙의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축구 경기규칙이 어떠한 형태로 변천되었고, 경기규칙 변천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기규칙 내용이 현대 축구 경기에 미치는 의미를 찾아 축구기술 개발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선행연구의 검토

현재 우리나라의 축구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축구 사에 관한 연구는 현재 거의 전무하다시피 그 연구가 부족한 형편이다. 이석운(1990)의 <축구경기의 득점상황과 득점시간에 관한 연구 -제 8 회 KBS 배 추계 전국고교축구대회를 중심으로 >, 최영택(1986)의 <축구선수의 스포츠사회화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시내 중 ·고 ·대학선수를 중심으로 >, 장재근(1987)의 <축구선수의 경기 전 심리적 불안에 관한 연구 -제 6 회 KBS 배 쟁탈전국고교 축구대회에 참가한 선수를 중심으로 >등의 논문이 있을 뿐이다. 이밖에 다른 종목의 규정변천 연구논문들을 살펴보면, 박점수(1979)는 <농구경기 규칙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에서 농구경기에서 개선되어야 할 규칙에 대해 논했다 예를 들면 전, 후반 없이 미국의 NBA처럼 쿼터별로 나누어 경기하여 체력소모를 방지하여 경기의 박진감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고, 김형원(1995)은 <유도 경기장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송용준(1999)은 <유도경기의 시설 및 용구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에서 유도 경기규정의 변천과정에 대해서 논했다는 것이 본 연구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들 논문은 경기장과 시설 및 용구라는 규정 내에서도 부분적인 면만 다뤘다는 차이가 있다. 한창효 (2000)의<태권도 경기규칙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 > 논문은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태권도 경기규칙 전반에 대한변천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1) FIFA 설립전과 설립 후의 경기규칙 변경 자료만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2) 축구경기의 기술, 과학적인 부분은 제외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축구의 유래

사람이 지구상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생존을 위한 활동 속에 존재해 온 각종 놀이는 원시에서 유사시대로, 고대에서 근대로 발전하는 문명을 따라 흘러오면서 독자적인 형태를 형성해 왔다. 물건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던지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다. 둥근 물건이 있으면 가지고 놀게 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된다. 모든 스포츠가 이 본능과 경쟁심에서 출발했다. 축구도 던지고 차고 달리는 인간의 두루뭉수리 본능 속에 3000여 년 간 잠재해 오다가 불과 150여 년 전에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둥근 물건을 발로만 차는 놀이로 분리됐다. 그 사람들은 군더더기와 섞인 살점을 잘 도려내듯이 '축구'라는 놀이를 따로 떼어내 틀을 만들고 질서를 정하고 재미를 더해서 해외로 나가는 상인과 노동자들을 통해 수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월드컵 축구대회'라는 것을 만들어 잔치를 열기 시작했고, 그 잔치의 재미가 쏠쏠하다고 해서 우리도 그 잔치를 한 번 해보자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축구가 어느 한 지역이나 특정 인종에 의해 시작됐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기원전에 있었던 원시적인 형태의 축구에 관한 기록들은 물론 신라, 중국,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이집트, 아시리아, 프랑스, 영국 등 세계 도처에 축구의 원형에 관한 얘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삼국사기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신라에는 '축국(蹴鞠)'이라는 놀이가 성행했다고 한다. 김유신과 김춘추가 '농주(弄珠)'를 가지고 노는 '축국'을 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축국'은 둥근 놀이기구, 이를테면 가축의 방광이나 태에 바람을 넣어 차거나 던지는 놀이였을 것이다. 기원전 7~6세기 경 그리스

에서는 '하르파스톤(Harpaston)'이라는 경기가 성행했고, 이것이 로마에 전파돼 무사들이나 군대스포츠로 발전하면서 '하르파스툼(Harpastum)' 또는 '파가니카(Paganica)'라는 새로운 경기로 변형됐다. '하르파스툼'은 로마 제국 내에 급속히 확산됐다. 이 경기는 각기 자기진영의 골라인을 지키는 두 팀 사이에 벌어졌다. 경기장에는 중앙원도 있었다. 이 놀이는 공을 차거나 던지면서 전진해 마지막에는 상대가 지키고 있는 골라인을 넘는 것이었다. 로마가 영국을 침략했을 때 '하르파스툼'이 영국에 소개됐다고 한다. 이집트에서도 둥근 물체를 발로 차거나 튀기거나 동료에게 패스하는 등의 놀이가 있었다. 약 3000년 전 중국의 한조 시대에는 축구의 일종인 '츄슈'라는 경기가 있었는데, 목표 지점을 향해 공을 차고 나가는 놀이였다고 전한다. 일본 사람들은 '게마리'라는 경기를 했다고 한다. 여덟 명이 한 편이 되어 네 모서리에 각각 나무기둥을 세워 놓은 구역 안에서 우군끼리 공을 패스하는 놀이였다

이러한 단순한 놀이들이 세계 도처에서 각각 독특하게 발생하고 성장했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축구와 흡사한 놀이들이 있었다고 하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축구의 원류는 영국에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축구가 오늘 우리들 앞에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모습으로 성장해 2002년 1월 현재 FIFA 회원국은 204개에 달하고 있다. 전 세계의 등록선수는 무려 2억5천만 명에 이르고 있어 '월드컵축구'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세계를 하나로 묶는 평화와 우호의 제전으로 굳어졌다.

2. 사커*(Soccer)*의 어원

'사커'는 격조 있는 애칭으로 '풋볼'은 일반적인 통칭으로 각각 구분된다. 사커의 어원은 이렇다. 1860년대 잉글랜드에서 축구협회(Football Associaion)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 풋볼'이란 용어가 생겨났고

그 뒤에는 '럭비 풋볼'도 탄생했다.

1863년 찰스 레포드-브라운이라는 잉글랜드 축구협회 임원이 친구들로부터 "러거(Rugger) 보러가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고는 "차라리 사커(Soccer)보러 가겠다"고 대답한데서 사커가 시작됐다는 설. 당시 축구규칙을 만든 잉글랜드 퍼블릭스쿨의 학생들은 별명 짓기를 즐겨했는데 많은 말끝에 'er'를 붙여 불렀다. 그래서 럭비가 러거로, 어소시에이션에서 변화된 어소커(Assoccer)가 결국 사커로 바뀌었다는 것. 당시 교육을 많이 받은 신사들의 축구가 사커로 불리며 격조를 낮춘 셈.

풋볼이란 그야말로 단순히 발로 볼을 찬다는 통칭으로 영국에서 용어가 수술돼 일반명이 됐고, 국제축구연맹(FIFA)의 마지막 F도 풋볼에서 따왔다.

*3. FIFA*의 탄생

축구역사에서 1863, 1872, 1885, 1904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들이다. 1863년 10월 26일 런던에서 세계 최초의 축구협회(FA)가 탄생했고, 축구의 표준 규칙도 마련됐다. 1872년은 사상 처음 국제축구 경기가 열린 해로 영국 글래스고에서 잉글랜드-스코틀랜드의 공식경기가 벌어졌다. 1885년 프로축구가 합법화됐으며 1904년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창설돼 축구의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이다. 산업화와 함께 확산된 축구는 여가시간을 이용한 놀이의 차원을 넘어 학교나 직장, 지역의 결속력을 높이는 도구가 됐고, 조직이나 지역 간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으로 확산됐다. 세월이 지나면서 지역 간의 경기를 조정하고 감독할 기구인 FA의 조직이 확대됐다. FIFA가 출범하는 1904년에는 이미 40여 개 나라의 축구협회가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유럽대륙에서는 국가간의 축구경기가 활발하게 벌어졌다. 그러나 규칙은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 마찰이 자주 일어났고, 규칙을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축구를 하는 나라들 간의 이해나 의견조정, 세계화를 위

한 기구를 만들자는 논의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1904년 5월 1일 브뤼셀에서 열린 벨기에-프랑스 경기 후 벨기에의 루이스 몰링 하우스와 프랑스의 게렝은 유럽대륙 축구기구를 창설키로 합의했고, 네덜란드 사람인 빌헬름 히르슈만이 작성한 축구의 국제기구에 관한 규약이 1902년 5월 8일 몇몇 국가 축구협회의 동의를 얻는 데 성공했다. 1904년 5월 21일 7개국(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대표들이 FIFA 본부인 프랑스의 체육회관에서 가진 회의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이 발족된다. 규약들은 효력을 발휘하게 됐고 FIFA가 활동을 시작했다. 이로부터 28년 후인 1932년 FIFA 본부는 스위스의 취리히로 옮긴다.

FIFA 창설국과 대표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Union des Societes Francaises de Sports Athletiques USFSA(대표 : 로베르 게렝과 앙드레 에스피르)

벨기에-Union Belge des Societes de Sports UBSSA(대표 : 루이스 물링하우스와 막스 칸)

덴마크-Dansk Boldspil Union DBU(대표 : 루드비히 실로우)

네덜란드-Nederlandsche Voetbal Bond NVB(대표 : 칼 안톤 히르슈만)

스페인-Real Madrid Football Club(대표 : 앙드레 에스피르)

스웨덴-Svenska Bollspells Forbundet SBF(대표 : 루드비히 실로우)

스위스-Association Suisse de Football ASF(대표 : 빅토르 E. 슈나이더)

1904년 5월 23일 제1차 FIFA 총회에서 프랑스의 로베르 게렝이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부회장에는 빅토르 E. 슈나이더(스위스)와 빌헬름 히르슈만(네덜란드), 재무담당 겸 사무총장에는 루이스 물링하우스(벨기에)가 임명됐다. 1905년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헝가리 그리고 영국이 FIFA에 동참했다. 월드컵 축구대회에 관한 안건이 처음 상정된 것은 이 프랑스 총회에서였다. 그런데 월드컵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출전 등록을 받았으나 1905년 8월 31일 마감됐을 때 신청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 무산되고 말았다.

이 회의 직전인 1904년 5월 1일 프랑스와 벨기에 대표 팀 간 최초의 공식 국제경기가 역사를 시작한다.

세계 1차 대전(1914-1918)으로 세계축구선수권대회로 이름 붙인 월드컵대회 개최를 위한 논의가 중단됐다. 월드컵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 모두가 1차 대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유럽축구가 1차 세계대전의 혼란에 빠져있는 동안 북미에서는 축구가 한참 재미를 더해 가고 있었고 남미에서도 축구가 꽃을 피웠다. 이 여파로 유럽나라들로만 구성됐던 FIFA가 1910년에 바다 건너 나라들이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 세계화하기 시작했다. 19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1912년에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FIFA에 가입한 것이다. 1913년에는 미국축구협회(United States Football Association)가 창설됐고 같은 해 FIFA에 가입했다. 3년 후 남미축구연맹(Federation Sudamericana de Football)이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1933년 9월 19일 조선축구협회를 창립, 지방별로 난립하던 축구단체를 통일시켰으며 1947년 FIFA에 정식가입, 올림픽 자격을 얻었다. 아시아축구연맹(AFC)에는 54년에 가입했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시대별로 나누어 연구하였으며, FIFA설립전과 FIFA 설립 후의 축구경기 규정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1. 시대구분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대를 구분하였다.

1) FIFA 설립 전

① 제1시기(초기-1862년) : FA(FOOTBALL ASSOCIATION)가 만들어지기 전의시기로 '사커'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전시기이다.

② 제2시기(1863-1903년) : 런던에서 11개의 풋볼 클럽 대표들이 FA를 창설하고'사커'라는 명칭을 만들어 사용하던 시기 이다.

2) FIFA 설립 후

① 제1시기(1904-1929년) : FIFA가 결성되어 국제 경기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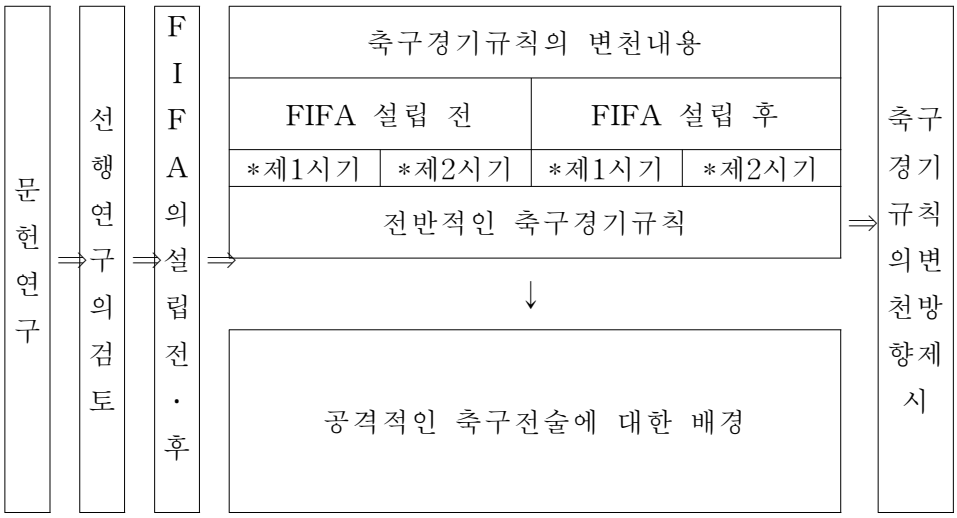
② 제2시기(1930-1953년) : FIFA의 주관으로 올림픽 중간 해에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세계 선수권대회(월드컵)가 열린 시기이다.

2. 자료 수집

축구규칙의 제도화 이전에 관한 문헌과 연구논문들을 참조하여 축구경기규정에 관련된 문헌 및 연구논문들을 중심으로 규정 변천에 대해 살펴보았다.

3. 연구의 절차

본 연구의 연구 절차는 다음과 <그림 Ⅰ- 1>과 같다.



<그림 Ⅰ - 1> 연구의 절차

Ⅳ. 축구경기 규칙의 변천과정

1. 최초의 축구 경기규칙

1863년 12월 8일에 영국 축구협회로부터 제정된 경기규칙은 다음과 같이 14개 항문으로 되어 있다.

제 1 조 : 경기장의 길이는 최대 180m로 하고 폭은 최대 90m로 한다.

경기장의 크기는 대를 세워 표시한다.

골대는 7.32m 간격으로 세운 두 개의 기둥으로 기둥과 기둥을 가로지르는 테이프나 바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 2 조 : 토스의 승자는 골을 선점한다.

경기의 개시는 토스에서 진편이 경기장의 중앙에서 프레스킥(Press kick)으로 시작한다.

상대 경기자는 볼을 킥오프(Kick off)할 때까지 볼에서 9.15m이상 근접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 득점 후에는 진영을 바꾼다.

실점한 팀이 킥오프를 한다.

제 4 조 : 득점은 볼이 양 골포스트의 사이, 또는 어느 정도의 높이를 통과하였으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단, 볼을 손으로 던지거나, 골대를 움직인 상황에서는 득점이 되지 않는다.

제 5 조 : 볼 터치로 나갈 경우에는 맨 처음 위반한 경기자가 볼 터치로 경기장을 넘어간 곳의 가장자리 선상에서 가장 자리선과 직각으로 경기장을 향해 던진다. 던져 넣은 볼이 경기장에 떨어지기 전에는 인플레이가 되지 않는다.(던지는 방법은 크릭 켙(Cricket)의 구기와 같은 방법으로 한손으로 머리 위

를 넘어 가게 던진다.)

제 6 조 : 어느 경기자가 볼을 찰 때 볼보다도 상대의 골라인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자기편의 경기자는 플레이에 참가하여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상대편의 경기자가 그 볼을 플레이하기까지는 볼을 건드리거나, 상대편이 볼을 플레이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볼이 자기 진영의 골라인 후방에서 팔 경우에는 전항의 규칙에 상관없이 어느 경기자도 플레이 할 수 있다.(이것이 오프사이드 규칙의 원형으로서, 이 규칙에서는 볼의 전방에서 플레이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제 7 조 : 볼이 골라인 후방에 나간 경우, 그 골을 수비하는 경기자가 나간 볼을 맨 처음 터치한 경우에는, 볼을 터치한 지점을 향하는 골라인 상에서 프리킥을 행하는 권리가 부가된다. 그렇지만 공격 시의 경기자가 나간 볼을 맨 처음 터치한 지점을 대향하는 골라인에서 13.5m 떨어진 지점에 볼을 놓고, 골을 향해서 프리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제 8 조 : 어느 경기자가 페어 캐치(Fair Catch)를 한 경우, 즉시 뒤꿈치로 지면에 마크하면, 프리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프리킥을 실행하기 위하여, 킥커는 좋아하는 쪽으로 물러설 수도 있다. 이 경우 상대편은 킥을 하기 전에 마크를 넘어 전진 할 수 없다.

제 9 조 : 볼을 손에 가지고서 움직이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 트리핑(Tripping)과 햇킹(Hacking)손으로 상대를 붙잡거나, 미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이러한 행위는 당시 핸드링식 축구에서는 정당한 플레이로 인정하고 있었다.)

제 11 조 : 볼을 다른 경기자에게 손으로 던지거나 패스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 어떠한 이유에서도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라운드 상의 볼에 손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 : 경기자가 페어 캐치하거나 또는 맨 처음 바운드되는 볼을 캐치

하였을 때는 볼을 던져도 좋고, 다른 경기자에게 패스하여도 좋다.

제 14 조 : 경기자는 축구화의 바닥 또는 뒤꿈치에 돌출된 못이나 쇠로 만든 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FIFA 설립 전*(*초기 ~ *1903*년*)* 경기규정

대영 제국의 축구는 150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형태로 지속돼 왔다. 안에 털을 넣고 짐승가죽으로 둥그렇게 싼 공을 차면서 마을과 마을 사이에, 때로는 쌍방에 수 백 명씩이 수마일 떨어진 골을 향해 밀고 밀리는 맹렬한 크로스컨트리, 또는 시장과 거리에서 사납게 날뛰는 소란스런 경기였다.

1369년 영국의 에드워드 3세는 병사들이 이 소란스런 놀이에 빠져 궁술연습을 게을리 한다는 이유로 축구경기를 금지시키려고 했다. 그래도 축구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끈질기게 되살아났다. 다소 미개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축구는 세계적인 경기로서의 매력을 내포하고 있었다.

1561년에 리처드 물카스터라는 교사가 '축구가 청소년 교육에 좋은 효과를 준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영향으로 진취적인 생각을 가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축구를 적극 권장했다.

1580년에는 이탈리아의 지오반니 바르디라가 '칼시오(Calcio : 축구)'라는 최초의 축구 규칙 집을 펴냈다. 이것이 영국축구와 이탈리아축구의 결합이었고, 서로 다른 두 나라의 축구가 동화되면서 큰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

1680년 영국의 왕 찰스 2세가 축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19세기 초에는 말타기, 사냥, 낚시 같은 종래의 스포츠를 즐기던 소년학생들이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친 축구경기의 원리를 빠른 속도로 학교 운동장이나 놀이터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 후 학교들은 축구를 각각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대항전을 갖는 등 각 학교의 전통으로 가꾸어 나간다. 경기 방식은 대개 20명이 한 팀으로 구성됐으나 공을 잡은 사람이 단독으로 드리블 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길게 차거나 앞으로 패스하는 방법도 드물게 쓰였다. 손은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1823년 여름 '윌리암 웹 엘리스'라는 학생이 손으로 공을 잡고 달려 득점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럭비 학교에서는 공을 손으로 잡고 달려도 된다는 내용을 규칙에 추가했다. 이로부터 럭비 학교와 다른 학교들의 축구 경기방식이 달라지게 됐다. 엘리스의 돌발적인 행동은 럭비경기의 시초가 됐고, 오늘날의 미식축구에도 영향을 끼쳐 공을 차거나 손으로 잡고 달리게 됐다.

1845년 영국의 이튼에서 축구경기에 심판이 처음 등장했다. 그러나 '심판(Referee)'이 아니라 '엄파이어(Umpire)로서 경기장 밖에서 조정역할만 했다.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 간에 경기규칙이 좀 달라도 별 문제될 일은 없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자 혼란이 생겼다. 대학에서도 경기를 계속하려면 공립학교마다 달랐던 규칙들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된 규칙으로 정리할 필요가 대두됐다.

1848년 이튼에 있는 공립학교들의 대표 14명이 '캠브리지 규칙(Cambridge Rules)'라는 축구규칙을 처음으로 통합 정리했다. 이 규칙은 '실용(practical), 공정(fair), 합리(reasonable)'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로부터 캠브리지가 축구규칙의 원산지가 된다. 이후 축구경기는 일반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아 갔고, 모든 대학들과 공립학교들에 클럽이 결성

돼 대항전은 더욱 활발해졌다. 그들은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사회인으로서 축구를 계속했다.

1855년 요크셔에서 쉐필드 크리켓(Sheffield Cricket)과 축구클럽Football Club)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1857년 잉글랜드에서 최초의 축구클럽 쉐필드(Sheffield FC)가 탄생했다.

1862년 노츠 카운티(Notts County)라는 축구리그가 창설됐다.

1863년 10월 26일, 드디어 런던 선술집에서 영국의 '축구협회(FA : Football Associaton)'가 창립된다. 이것이 축구의 공식기구 1호다. FA가 다소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던 축구에 일정한 형태와 질서와 스포츠정신을 불어넣는 14개조의 정리된 규칙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축구경기의 기초들이 이때부터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1866년 초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쉐필드 클럽이 런던과 쉐필드에 있는 클럽들 간에 경기를 갖자고 제의해 3월 31일 지역 간 경기가 열렸다.

1869년 골킥이 도입됐다.

1870년에는 FA가 11명으로 하는 팀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15명에서 60명까지도 뛸 수 있었던 한 팀의 선수를 11명으로 제한한 것이다.

1871년에는 FA컵 대회가 시작됐고, 결승전이 2,000명의 관중 앞에서 치러졌다. 1888년의 결승전 관중은 17,000이었다. 1893년에는 45,000명이었다. 그리고 1901년 결승전에는 무려 110,000명의 대 관중으로 폭증했다. '골키퍼'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것도 1871년이다.

1872년 11월 30일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우 Partick(관중 4,000명)에서 잉글랜드(포메시션 1-1-8)와 스코틀랜드(2-2-6)간에 세계 최초의 비공식 국제경기(0-0)가 벌어졌다.

1873년 코너킥이 도입됐고, 골라인과 코너아크가 그어졌다.

1874년 정강이 보호대(Shin Pads 또는 Guards) 착용을 허용했다.

1875년 크로스바가 정식으로 설치됐다. 1863년 10월 26일의 규칙에는 크로

스바라는 용어가 없었다.

1877년에는 대영 제국 내의 축구협회들이 통합 경기규칙을 마련했다.

1878년 최초의 조명 아래 야간경기가 세필드에서 거행됐다.

*엄파이어의 휘슬을 잉글랜드 노팅엄 포리스트 경기장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1880년 최초의 여자 축구팀이 영국에서 '네틀 허니볼'이라는 이름으로 창단했다.

1882년 킥오프를 위한 지점 센터 스파트, 킥오프 시 상대선수들이 10야드(9,15m) 거리에 떨어져 있도록 하는 중앙원, 양 팀의 진영을 가르는 중앙선을 설치했고, 스로우 인(Throw in)을 두 손으로 터치라인 밖에서 하도록 했다.

1883년 영국의 4개 축구협회들이 축구와 축구규칙에 관한 모든 것을 논의, 결정하는 기구인 국제축구평의회(The International Football Association Board)의 규약을 통일시키는 데 합의했다.

1885년 프로축구의 규범화가 잉글랜드에서 이루어졌다.

1886년 6월 2일 국제축구평의회(IFAB)의 첫 공식회의를 열었다. 같은 해 IFAB는 경기관리자 양성사업에 착수했다.

1888년 4월 영국에서 6개의 클럽이 세계 최초의 공식리그를 시작했다. 축구는 산업혁명이 일어나 시골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대영 제국 전역에서 재미와 여가를 위한 경기로 발전했다. 1888년에는 리그가 형성되면서 프로선수가 공인됐다. 그리고 영국은 축구를 세계로 전파하기 시작했다. 무역상인들은 물론, 다른 나라들의 공업화 요구로 파견된 기술자들, 숙련공들, 철도건설 노동자들이 축구를 확산시켰다. 축구는 체력과 투지, 그리고 개인의 능력과 조직력이 요구되는 경기다. 신체적으로는 심장과 폐기능을 향상시키고, 정신적으로는 용기와 결단력, 단결심을 길러준다. 또 축구경기는 매우 단순한 데다 규칙도 알기 쉬워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 나갔다.

1890~91시즌 아일랜드 축구협회에 의해 페널티킥(당시 이름은 'The Kick

of Death')이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1902년까지는 골라인으로부터 12야드(11m) 거리 어디에서나 차도 됐다.

1891년 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열린 린필드 FC와 미국 캐나다 혼성팀의 경기에서 세계 최초의 페널티킥이 있었고 혼성팀의 미국 출신 제프리 선수가 축구 사상 제1호 페널티킥을 성공 시켰다. 잉글랜드는 1891~92시즌 페널티킥 제도를 채택했다.

영국 프로축구리그에서 경기장 안에 1명의 레퍼리와 밖에 2명의 선심(Linesman)을 채용했다. 이전에는 2명의 '엄파이어(Umpire)'가 양 팀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고, 터치라인에서 시간을 재는 한 명의 레퍼리(Referee)가 있었다. 그러다 분쟁이 점차 많아지자 레퍼리에게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양 팀의 의견을 듣지 않고 퇴장, 페널티킥, 프리킥을 선언하도록 하고, 두 명의 엄파이어는 선심(Linesman)으로 역할을 변경했다.

골네트가 경기규칙에 추가됐다.

1892년 2부 리그가 출범했다.

1899년 축구의 국제 교류시대를 여는 개척자로 독일의 한 축구팀이 잉글랜드에 파견됐다.

1902년 페널티킥 벌칙을 적용할 범위인 페널티박스, 페널티킥을 할 페널티마크, 문전에 반원 대신 골에어리어가 설치됐다.

3. FIFA 설립 후*(1904*년 ~ *2002*년*)* 경기 규정

1904년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축구연맹(FIFA)이 7개국대표-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레알 마드리드 FC), 스웨덴, 스위스-에 의해 창립됐다.

1905년 알프 콤몬(Alf Common)이 £1,000($2,000)에 선더랜드에서 미들스브러로 이적료를 받고 이적한 최초의 선수가 됐다.

1912년 GK의 손사용을 자기진영 내에서 페널티에이리어 내로 제한했다.

1913년 FIFA가 국제축구평의회(IFAB)에 가입했다.

코너킥에서 키커가 직접 몰고 나가는 것을 금지했다.

1925년 오프사이드 규칙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됐다.

1927년 아스날 대 세필드 유나이티드 경기가 최초로 라디오 중계방송 됐다.

직접프리킥으로 직접 골을 넣어도 되게 규정을 개정했다. 이전에는 프리킥 직접 득점은 인정되지 않았다.

1930년 제1회 월드컵축구대회가 1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우루과이에서 열렸다.

1937-38년 국제축구평의회는 잉글랜드의 스탠리 라우스 경이 성안한 17개조의 축구규칙을 50년 만에 개정해 1938년부터 시행했다.

1958년 처음으로 텔레비전이 스웨덴 월드컵 축구경기들을 생중계했다.

1962년 FIFA 회원국이 100개에 이르렀다.

1965년 선수교체를 처음으로 리그경기에 도입했다.

1970년 멕시코월드컵축구대회 경기들이 위성을 통해 생중계됐다.

선수교체 제도를 월드컵에 도입했다.

이 대회에 레드카드와 옐로카드를 처음 도입했으나 이 대회는 퇴장자가 없었다. 옐로카드와 레드카드는 1967년 잉글랜드의 Kenneth George Aston이 운전 중 런던의 켄싱턴 거리 교통신호등을 보다가 착안한 것이라고 한다. 잉글랜드 에식스(Essex) 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고 유능한 축구심판으로 꼽혔던 켄 아스톤은 1970년부터 72년까지 FIFA의 심판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2001년 10월 23일 86세로 생을 마감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페널티킥과 동일한 방법의 승부차기를 확정했으며 월드컵에는 82년 스페인월드컵에서부터 적용했다. 월드컵 최초의 승부차기를 한 경기는 그 대회 준결승 서독(3-3, 5-4)프랑스였다.

우리나라에서는 70년 6월3일 인천공설운동장에서 벌어진 제19회 대통령배 축구대회 예선리그 해병대와 한전의 경기 때 시범적으로 운영됐다. 승부차기가 채택되기 이전에는 대부분 추첨으로 승부를 가렸으며 결승전에서는 공동우승으로 처리했다. 우리나라 축구 초창기에는 연장전에서도 결판이 나지 않으면 반칙이 적은 팀이나 코너킥을 많이 한 팀이 이긴 것으로 했다.

1971년 펠레가 브라질 국가대표로 92경기에 77골을 기록하고 대표에서 은퇴했다.

1977년 제1회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FIFA World Youth Tournament. 1981년 'World Youth Championship. 20세 이하'로 개칭)가 튀니지에서 열렸다.

1978년 수비 팀이 자기 골 에어리어 내에서 얻은 프리킥은 '골 에어리어 절반 내 어느 곳에서 차도된다'는 규칙 추가했다.

1979년 직접프리킥과 간접프리킥을 구분하기 위해 주심은 간접프리킥 때 한쪽 팔을 위로 들도록 국제축구평의회가 결정했다.

1980년 상대선수, 경기관련자, 그 밖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는 행위는 난폭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1985년 제1회 16세 이하 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FIFA U-16 World Tournament. 1991년 'Under-17 World Championship'로 개칭)가 중국에서 열렸다.

1988년 FIFA의 페어플레이 캠페인(The FIFA Fair Play campaign)이 시작됐다.

1991년 제1회 여자월드컵축구대회(FIFA World Championship for Women's Football)가 중국에서 열렸다.

1994년 선수교체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심판들의 유니폼도 전통적

으로 검은색이었으나 1994년 미국월드컵 때 다양한 색의 심판복이 선을 보였고, '98프랑스 월드컵부터 다양한 심판복이 공식화됐다.

1996년 '선심(Linesman)'을 '부심(Assistnt Referees)'로 변경했다.

1997년 3월 1일 60년 만에 국제축구평의회 연례회의에서 오프사이드, 백패스, GK의 4보, 선수교체, 킥오프와 골킥 직접골 인정.등 일부 규칙을 개정하면서 영어로 10,532개에 달하던 단어를 7,484단어로 30%나 줄였다. 스코틀랜드의 죠지 커밍(George Cummuing)이 책임자로 2년여에 걸친 연구와 정리작업 끝에 마무리된 이 개정규칙은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1998년 블라터(Joseph S. Blatter)가 아벨랑제Joao Havelange)의 후임으로 FIFA 회장에 취임했다.

1999년 2월 20일 국제축구평의회(IFAB) 113차 총회에서 새로운 선수교체 제도인 '플라잉 섭스티튜션(Flying Substitutions)'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1999년 7월부터 체력의 부담이 많은 여자축구, 16세 이하 청소년, 35세 이상 베테랑선수들에 적용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수교체를 수시로 한다.

교체된 선수를 다시 기용할 수 있다.

교체는 교체장소에서만 한다.

교체 시 입장선수는 퇴장선수의 번호판을 든다.

2002년 한국과 일본이 아메리카와 유럽을 처음으로 벗어나는 월드컵축구대회를 공동개최했다.

*2002*월드컵에 새로워지는 것들

월드컵 엔트리 교체, 첫 경기 24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2002한/일 월드컵 본선의 엔트리가 23명으로 확정됐다. 국제축구연맹은 각 국의 본선출전 등록선

수를 23명으로 1명 늘리고 이 중 3명은 반드시 골키퍼로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엔트리가 1명 늘어난 것은 골키퍼의 부상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뤄졌다. 각국의 최종엔트리는 본선 개막 10일전인 5월 21일까지 내야 한다. 따라서 32개국에서 총 736명의 선수들이 이번 월드컵에 출전하게 된다. 지난 98프랑스월드컵 때는 엔트리22명 외에 부상에 대비한 예비로 GK 1명을 추가 등록할 수 있게 했었다. 2002년 월드컵 각국 선수단은 선수 23명과 임원 22명 등 총 45명으로 확정했으나 50명까지 가능하다. 단 45명을 넘는 인원의 경비는 해당국이 부담해야 한다.

월드컵 출전 엔트리 교체는 불가피할 경우 1명에 한해 첫 경기 시작 24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 손질이 이뤄졌다. 이 경우 해당 팀은 선수교체에 관한 의학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FIFA 스포츠의학분과에서 판정해 인정 여부를 판정한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7일 도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2한일월드컵 공식팀 워크숍에서 본선진출 32개국 대표단에 이 같은 내용의 바뀐 규정을 통보했다.

이밖에 등번호 1번은 골키퍼만 달수 있고 GK를 포함해 선수들이 다는 등번호는 1번부터 23까지 이어진다. 벤치에 앉을 수 있는 임원은 감독을 포함해 7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다. 팀 연락관이 경기 중 벤치에 앉을 경우 벤치에 앉을 수 있는 임원 10명중 한 명은 반드시 벤치를 나가야 한다.

각 국의 선수단이 입는 유니폼은 예선리그 세 경기 중 한 경기는 팀 고유의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기로 했다.

FIFA는 이외에도 선수단이 첫 경기 시작 닷새 전까지 입국토록 하고, 5일 동안의 훈련 일정 중 4일은 공개해야 한다. 하루는 비공개로 훈련이 가능한데 그 날짜는 감독의 판단에 따라 택할 수 있다. 훈련장면은 처음 15분간만 미디어에 공개된다. 본선 출전팀은 조별리그가 열리는 동안 경기장소 해당국을 떠나지 못하며 조별리그를 마쳤더라도 야간에는 한국 또는 일본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선수들이 타는 비행기는 지난 대회까지의 이코노믹클래스에서 비지니스클

래스로 상향조정됐다.

조별리그 순위에 관한 규정

조별 선두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 각 조 중 가장 높은 승점을 얻은 팀

(b) 조별 경기를 통해 골 득실차에서 앞서는 팀

(c) 조별 경기를 통해 다득점에서 앞서는 팀

두 팀 이상의 팀이 위와 같은 규정에도 동일한 조건이라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d) 대상이 되는 팀 중 조별 경기에서 더 높은 승점을 얻은 팀이 우선한다.

(e) 대상이 되는 팀 중 조별 경기에서 골득실에서 앞서는 팀이 우선한다.

(f) 대상이 되는 팀 중 조별 경기에서 더 많은 골을 얻는 팀이 우선한다.

(g) 추첨에 의해서 결정된다.

각 조 1, 2위를 차지한 팀은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

경고 및 출전 금지에 관한 지침

2002한국/일본월드컵의 2라운드에 적용되는 경고와 출전 금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경고

· 1라운드 경기에서 받은 한 개의 옐로우 카드는 16강에까지 이전되지 않는다.

· 1라운드의 서로 다른 두 경기에서 받은 두 번의 경고는 자동적으로 한 경기 출장 금지 조처를 받게 되는 바 이는 16강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

출전 금지

직접적인 레드카드 또는 두 번의 경고 누적으로 레드카드를 받은 선수는 자동적으로 다음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골 세리머니, 수중전, 전광판 슬로비디오

2002년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도쿄에서 열린 FIFA 월드컵 본선진출국 워크숍에서는 2002한/일 월드컵의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논의, 결정됐다.

골 뒤풀이-골을 넣은 선수가 유니폼(셔츠)을 벗고 한호하면 옐로카드를 받는다. 이유는, '공식 유니폼에는 FIFA 후원업체 마크나 로고가 보이지만 선수들이 입는 언더셔츠는 후원사가 아닌 업체의 제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상업적인 측면에 있다. 그리고 전 세계 수억 명이 지켜보는 경기 도중에 선수가 속셔츠에 적힌 정치적 메시지를 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유니폼을 벗으면 안 된다는 것이 FIFA의 방침이다.

수중전 FIFA 젠 루피넨 사무총장은 2월28일 32개 출전국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대회기간 중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악천후 때 경기의 중지나 순연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월드컵이나 그 밖의 축구에서 날씨 때문에 경기를 중지하거나 순연한다는 규정은 없었으며 경기가 중지된 적도 없다. 그러나 6월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태풍이 발생하는 한국과 일본의 기후를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광판 슬로비디오 금지-2002월드컵에서는 경기장 내 대형 전광판에서 슬로비디오를 볼 수 없게 됐다. 국제축구연맹은 2002년 3월 8일 취리히에서 요한손 UEFA 회장 주재로 열린 2002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할리우드 액션' 강력 제재

2002한일월드컵축구대회에서는 반칙 판정을 유도하기 위해 선수가 심판을 현혹하는 속임 동작, 이른바 '할리우드 액션'이 최소 옐로카드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이는 FIFA가 한일월드컵에서 처음 적용하는 것으로, 정식축구용어로 '시뮬레이션'인 할리우드 액션에 대해 심판이 적어도 옐로카드를

주도록 엄격해졌다. 심판 판정의 초점이 4년 전 프랑스월드컵 때 백태클(뒤에서 다리를 거는 행위)이란 보이는 동작에서 지능적인 행위로 옮겨진 셈이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로 비디오테이프도 사용될 전망이다. 제프 블라터 FIFA 회장은 "이번 월드컵에서 페널티킥을 따내거나 상대 선수의 경고나 퇴장을 유도하기 위해 부상한 체하거나 과장된 다이빙과 경기장에 누워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는 선수에게는 퇴장을 명하도록 했다. FIFA는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심판위원회와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블라터 회장은 또 "페어플레이를 위해 비디오테이프가 부정행위에 따른 징계를 위한 증거물로 채택될 수도 있다"며 "카메라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선수들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IFA는 특히 페널티 지역 내 등 지역과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퇴장을 줄 것이라고 각국 대표단에 경고했다. FIFA 스터디그룹은 "프랑스월드컵 본선 경기를 여러 각도에서 찍은 카메라를 통해 정밀 분석해본 결과 심판이 선수 몸짓에 자주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처음 반칙을 못 얻더라도 심판 심리에 영향을 미쳐 결국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FIFA는 또 경고 누적제를 완화, 조별리그 3경기에서 한 선수가 옐로카드를 2번 받더라도 16강 토너먼트부터는 경고누적에 위한 1경기 출장정지 벌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레드카드, 즉 퇴장에 따른 1~2경기 출전금지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FIFA는 판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열린 부에노스아이레스 총회에서 도입하기로 의결한 국제축구중재재판소를 이번 한일월드컵부터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FIFA는 본선출전국들이 본선 전에 치르는 친선경기들 중 적어도 1경기는 약물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검사는 각 팀의 트레이닝캠프에서 받아도 된다. 근지구력 강화제 에리스로포이에틴(EPO)등 첨단 금지약물추방을 위해 혈액검사도 도입키로 했다.

한편 FIFA 입장권소위원회는 5월부터 허용되는 해외입장권 미판매분의 국내 판매를 4월부터 가능하도록 한일 양국조직위원회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장 루피넨FIFA 사무총장이 전했다.

경고와 퇴장 등에 벌금 부과

FIFA 징계위원회는 2002년 5월 30일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경고와 퇴장 등에 따른 벌금 규정을 확정했다고 FIFA 징계위원회 마르셀 마티에르 의장이 밝혔다

경고(옐로카드)를 받는 행위 중 1. 심판의 눈을 속이는 과장된 행동에는 벌금 2,000 스위스 프랑(한화 약 150만원)이 부과된다. 2. 셔츠를 잡아당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2,000 스위스 프랑이 부과된다. 3. 다른 경기에서 두 번째로 경고(옐로카드)를 받았을 때는 벌금 1,000 스위스 프랑이 부과된다.

퇴장(레드카드)의 경우 1. 직접적인 퇴장 시에는 벌금 2,000 스위스 프랑이 부과된다. 2.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할 시에는 벌금 2,000 스위스 프랑이 부과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선수 뿐 만 아니라 경기장 내 관계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며 벌금 부과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비디오 판독 후 징계 도입

FIFA는 이번 월드컵에서 심판의 눈을 피해 교묘하게 악성반칙을 범하는 선수를 비디오 판독을 통해 색출해 '경기 후 징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FIFA는 심판이 경기 중에 발견하지 못한 질 나쁜 반칙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주관 방송사의 중계방송용 화면과는 별도의 미디어 팀의 경기 촬영으로 '경기 당일 분석, 다음날 최종 징계 발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심판의 경기 중 판정에 대해서는 이 비디오판독으로 번복하거나 정정할 수 없게 함으로써 심판의 기존 권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로 했다.

***FIFA* 징계위원회, 도핑 테스트에 대한 입장 발표**

FIFA는 5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징계위원회(회장-마르셀 마티에르)에서

2002 FIFA 월드컵의 도핑 테스트 실시와 관련해 다음 규정을 재확인했다. * FIFA가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은 FIFA 도핑 테스트 규정에 따라 FIFA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어떠한 테스트에도 응하겠다고 동의를 해야 한다. * 따라서 이 규정에 반드시 동의해야만 각종 FIFA 대회에 출전이 가능하고 실제로 대회 기간에 도핑 테스트를 받을 수도 있다. 만일 도핑 테스트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혈액 검사를 받겠다고 사전에 서면 동의(대회 첫 경기 24시간 전 또는 특별한 경우 한 시간 전)를 하지 않은 선수는 본 대회 출전이 금지된다.

우승국 다음 대회 자동출전 없애

FIFA는 본선 조 추첨 하루 전인 11월 30일 집행위원회에서 전 대회 우승국에 다음 대회 본선 자동출전권을 주는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조셉 블라터(Joseph S. Blatter) FIFA 회장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 결정의 배경은 더 많은 국가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월드컵 우승국은 2006년 독일월드컵 본선에 자동출전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4. 최근의 축구경기규칙

1) 경기장

(1) 경기장 표면

대회 규정에 따라서 천연 잔디 또는 인조 잔디 위에서 경기할 수 있다.

(2) 넓이

경기장은 반드시 직사각형이어야 한다.

터치라인의 길이는 골라인의 길이보다 길어야 한다.

길이는 최소 90m, 최대 120m이며

너비(폭)는 최소 45m, 최대 90m이어야 한다.

(3) 국제경기

-그러나 국제 경기는 길이가 최소 100m에서 최대 110m이내여야 하며 너비(폭)는 최소64m에서 최대 75m이내여야 한다.

(4) 경기장의 표시

-경기장은 명확한 선으로 긋는다. 경계선은 각 지역의 넓이에 포함된다.

-두 개의 긴 경계선을 터치라인이라 한다. 두 개의 짧은 경계선을 골라인이라 한다.

-모든 선의 폭은 12cm(5인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

-경기장은 중앙선(하프 웨이 라인)에 의하여 둘로 나누어진다.

-센터 마크는 중앙선의 가운데 지점에 표시한다.

-센터 서클은 반지름이 9.15m인 원을 그려 표시한다.

(5) 골 에어리어(Goal Area)

골 에어리어는 경기장의 각 끝에 한정하여 다음에 따라 표시한다.

-각 골 포스트의 안쪽에서 코너 쪽으로 5.5m 되는 곳에 골라인과 직각이 되도록 경기장 안쪽으로 5.5m의 길이가 되게 두 개의 선을 긋고, 그 끝을 골라인과 평행이 되게 직선으로 연결시킨다.

-이 선들과 골라인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골 에어리어라 한다.

(6) 페널티 에어리어(Penalty Area)

페널티 에어리어는 경기장의 각 끝에 한정하여 다음에 따라 표시한다.

-각 골 포스트의 안쪽에서 코너 쪽으로 16.5m되는 곳에 골라인과 직각이 되도록 경기장 안쪽으로 16.5m의 길이가 되게 두 개의 선을 긋고, 그 끝을 골라인과 평행이 되게 직선으로 연결한다. 이 선들과 골라인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페널티 에어리어라 한다.

-각 페널티 에어리어 안의 두 골 포스트 중앙에서 11m 되는 지점에 페널티 마크를 표시한다.

-페널티 마크에서 반지름이 9.15m인 원호를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그리고 이를 페널티 아크라고 한다.

(7) 플랙 포스트(Flag Post)

-높이 1.5m 이상의 끝이 날카롭지 않은 깃대와 깃발을 각 코너에 설치한다.

-중앙선의 양 끝 터치라인 밖 1m 이상 되는 지점에도 깃대를 설치할 수 있다.

(8) 코너 아크(Corner Arc)

-각 코너 플랙 포스트에서 반지름이 1m인 ¼원을 경기장 안쪽에 그린다.

(9) 골대(Goal)

-골대는 반드시 각 골 라인의 중앙에 설치한다.

-양 코너 플랙 포스트에서 같은 거리에 두 개의 포스트를 똑바로 세우고, 두 개의 포스트윗부분을 수평의 크로스 바로 연결한다.

-양 포스트의 거리는 7.32m이고, 지면에서 크로스바의 아래쪽까지의 높이는 2.44m이다.

-골포스트와 크로스바의 폭과 두께는 같아야 하며, 12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골라인의 폭은 골포스트와 크로스바의 폭과 같아야 한다.

-골네트를 골 뒤쪽 지면에 설치할 수 있으며, 골키퍼를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받쳐 주어야 한다.

-골포스트와 크로스바는 흰색이어야 한다.

-골대는 지면에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이동식 골대는 안전에 대한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사용할 수 있다.

경기장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사항

만일 크로스바가 부러지거나 위치가 바뀌었다면 수리하거나 제 위치에 놓여질 때까지 플레이는 중지된다.

만일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경기를 포기한다.

만약 크로스바가 수리되었다면 플레이가 중지되었을 때 볼이 있던 위치에서 드롭 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골포스트와 크로스바는 목재, 금속 또는 승인된 재료로만 만들어야 한다.

모양은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타원형으로 경기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한다.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와서 하프 타임에 경기장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실물 또는 사실상 상업적인 선전물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골네트, 에어리어 포함).

특히 골대, 네트, 플랙 포스트, 플랙에 어떤 종류의 선전 자료도 전시해서는 안 된다. 외부의 설비(카메라, 마이크)도 부착할 수 없다.

기술지역 내에서 터치라인과 필드 바깥쪽의 1m 사이에는 어떠한 광고도 표시할 수 없다. 또한 골라인과 골네트 사이에도 어떠한 광고도 표시할 수 없다.

실물 또는 사실적으로 FIFA, 대륙연맹, 국가 협회, 리그, 클럽, 기타 조직을 상징하는 도안을 경기 중에 또는 결정 3에 기술된 상황에서 경기장이나 경기장 시설물에 재구성하는 것은 금지된다(골네트, 골 에어리어 포함).

코너킥을 할 때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코너 아크로부터 9.15m 떨어진 골라인에 직각이 되게 경기장 밖에 선을 표시할 수 있다.

FIFA 회원국의 대표 팀 간 경기나, 클럽 팀 간의 국제 경기를 인조 잔디에서 진행하고자 할 경우, 경기장 표면의 상태는 FIFA의 다른 지침이 없는 한 FIFA의 인조 잔디 기준 혹은 국제 인조 잔디 기준에 합당하는 조건을 지녀야 한다.

테크니컬 구역을 설치할 때는 국제축구평의회에서 승인한 조건에 부합하게 만들어야 한다.

2) 볼

(1) 품질과 치수

볼은 둥근 모양이어야 하며

가죽 또는 알맞은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둘레의 길이는 68cm(27인치)이상, 70cm(28인치) 이하이어야 하며

경기 시작시 무게는 410g(14온스) 이상, 450g(16온스) 이하이어야 한다

공기 압력은 해면에서 0.6 기압 이상, 1.1기압 이하여야 한다.

(2) 결함 있는 볼의 교체

만일 경기 중 볼이 터지거나 바람이 빠졌다면 경기를 중단하고, 교체된 볼로 처음에 결함이 발생된 장소에서 드롭 볼로 재개한다.

만일 킥오프, 골킥, 코너 킥, 프리 킥, 페널티 킥, 드로우 인 등 인 플레이가 아닐 경우, 경기는 상황에 따라 재개한다.

경기 중에 주심의 허락 없이 볼을 바꿀 수 없다.

볼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사항

공식 경기에서는 규칙 2에 규정된 최소한의 기술적 조건에 맞는 볼만을 사용한다.

FIFA 공식경기나 대륙 연맹 주관경기에서 사용이 허가되는 볼은 "FIFA APPROVED" 로고, "FIFA INSPECTED" 로고, "INTERNATIONAL MATCH BALL STANDARD" 마크 중의 하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볼의 지정은 규칙 2에 지정된 최소의 명세에 첨가하여 각각 다른 범주의 특수한 기술 조건과 토대에 따라 공식으로 실험을 완료했음을 뜻한다. 각각의 범주에 첨가된 특수 조건들의 목록은 국제축구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테스트의 관리원칙은 FIFA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각 국가 축구협회 경기에서는 지정된 세 가지 중 하나와 관련 있는 볼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다른 모든 경기에서는 규칙 2의 조건에 맞는 볼을 사용해야

한다.

FIFA 공식 경기, 대륙 연맹, 국가 협회 주관 경기에서 대회 혹은 주최 측의 상징, 볼 제조자의 상표를 제외하고 볼에 어떠한 종류의 상업적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회 규정에 마크의 크기와 숫자를 제한할 수 있다.

3) 선수의 수

(1) 선수

경기는 각각 11명이 넘지 않게 편성된 두 팀에 의해서 행하며, 팀 중의 한명은 골키퍼이다.

어느 한 팀이라도 7명보다 적을 때에는 경기를 개시할 수 없다.

(2) 공식 경기

FIFA, 대륙 연맹, 국가 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공식 경기에서는 경기 중 최대 3명까지 교체할 수 있다.

교체를 위해 대기할 수 있는 선수의 수는 3명에서 최대 7명이며, 몇 명을 지명할 수 있는지는 대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3) 기타 경기

그 외의 경기에서는 최대 6명까지 선수 교체가 가능하다.

(4) 모든 경기

모든 경기에서 경기 개시 전에 교체를 위한 대기 선수의 명단을 주심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체 대기 선수 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5) 교체 절차

교체 선수로 경기자를 대체할 때는 다음 조건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주심은 교체하기 전에 교체 의사를 통보 받아야 한다.

교체되어 나가는 자가 경기장을 떠난 뒤 주심의 신호를 받은 후에 입장한다.

교체 선수는 경기가 중지된 동안 중앙선에서만 입장한다.

교체는 교체 요원이 경기장에 입장하면 완료된다.

교체되어 들어간 순간부터 그 사람은 선수가 되고, 교체되어 나온 선수는 그 경기에서 선수로서의 자격이 끝난다.

교체되어 나온 선수는 잔여 시간의 경기에 참여하지 못한다.

모든 교체 요원들은 경기를 하건 하지 않건 주심의 권위와 관할권에 복종해야 한다.

(6) 골키퍼의 교체

어느 선수라도 골키퍼와 위치를 바꿀 수 있으나 바꾸기 전에 주심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경기가 중지된 동안만 교대할 수 있다.

(7) 위반 및 처벌

만일 교체 선수가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입장하였다면, 주심은 플레이를 중지한다.

주심은 교체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하고, 경기장을 떠나게 한다.

플레이가 중지되었을 때 볼이 있던 장소에서 드롭 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만일 주심의 허락 없이 선수가 골키퍼와 위치를 바꾸었다면, 일단 플레이는 계속한다.

아웃 오브 플레이(Out of play) 때 주심은 해당 선수들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다른 위반에 대해서는 주심은 옐로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8) 플레이의 재개

만일 주심이 경고 조치를 행하기 위하여 플레이를 중지시켰다면, 플레이가 중지되었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9) 선수와 교체 요원의 퇴장

선수가 경기를 개시(처음의 킥오프)하기 전에 퇴장되었을 때는 교체 대기 선수중의 한 명으로 보충할 수 있다.

교체 대기 선수가 경기 개시 전 또는 후에 퇴장 당했을 때는 보충할 수 없다.

선수 숫자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 사항

한 팀의 최소 경기자 수는 위의 조건들을 우선으로 하되, 각 국가 협회가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어느 팀의 경기자가 7명보다 적을 때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축구평의회의 의견이다.

경기 중에 팀의 임원은 선수들에게 전술상의 지시를 전할 수 있으나, 지시 후 즉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팀의 모든 임원들은 기술 지역(테크니컬 에어리어)이 존재하는 경우, 그 안에서만 머물러야 하며 또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4) 선수의 장비

(1) 안전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경기자에게 위험스러운 장비 또는 물건을 착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보석류 포함).

(2) 기본 장비

선수의 기본 장비는 상의, 하의(보온 바지를 착용할 경우는 하의의 기본 색상과 같아야 한다), 양말, 정강이 보호대, 신발로 이루어진다.

(3) 정강이 보호대

정강이 보호대는 양말로 완전히 덮인 상태여야 하고, 적절한 재료로 만든 것(고무, 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이어야 하며, 보호의 정도에 무리가 없는 장비여야 한다.)

(4) 골키퍼

각 골키퍼는 다른 경기자나 주심 또는 부심과 구별되는 색의 옷을 착용해야 한다.

(5) 위반 및 처벌

본 규칙을 위반할 때에는 플레이를 중지시킬 필요는 없다.

선수의 장비가 잘못되어 있으면 경기장을 떠나서 그의 장비를 고치도록 주심이 지시한다.

이미 장비를 바르게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낸다.

어떤 선수건 경기장을 떠나 장비를 고친 뒤 주심의 허락 없이는 재 입장하지 못한다.

주심은 장비를 고친 선수가 경기장에 재 입장하도록 허락하기 전에 장비가 올바른지 점검한다.

선수는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때에만 재 입장이 허용된다.

본 규칙의 위반으로 선수가 경기장을 떠났다가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입장(또는 재입장) 했을 때, 주심은 옐로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6) 플레이의 재개

주심이 선수의 장비와 관련하여 경고 조치를 행하려고 플레이를 중지시켰다면 주심이 경기를 중지 시켰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선수 장비 관련 국제축구평의회 결정 사항

선수는 슬로건, 광고가 담긴 속옷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 선수가 상의를 벗어 광고나 슬로건이 노출되면 대회 조직위원회에 의하여 처벌될 것이다.

상의는 소매가 있어야 한다.

5) 주심

(1) 주심의 권위

경기 규칙 시행과 관련된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심에 의하여 경기가 관리되도록 매 경기마다 주심이 임명된다.

(2) 권한과 임무

주심은 경기 규칙을 시행한다.

주심은 부심, 대기심과 적절히 협조하여 경기를 관리한다.

주심은 볼이 규칙 2의 요구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주심은 선수의 장비가 규칙 4의 요구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주심은 경기의 기록과 계시원의 역할을 한다.

주심은 경기 규칙 위반에 대하여 중지, 일시 중단, 종료시킬 권한이 있다.

주심은 어떤 유형의 외부 방해를 이유로 경기의 중지, 일시 중단, 종료시킬 권한이 있다.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심한 부상을 입었을 때 경기장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경기를 중지 한다. 부상당한 선수는 경기가 재개된 이후에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다.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가벼운 부상이라면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될 때 까지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한다.

주심은 선수가 부상으로 인하여 피를 흘릴 때에는 경기장에서 떠나게 한다. 주심은 부상 선수가 출혈을 멈췄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주심의 신호가 있어야만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다.

주심은 어드밴티지 상황의 경우 반칙이 발생하였더라도 팀에 이득이 있을 때에는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하고, 만일 그때 예상했던 이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최초의 반칙으로 처벌한다.

주심은 선수가 동시에 한 가지 이상의 반칙을 범하였다면 더 심한 반칙으로 처벌한다.

주심은 경고와 퇴장 반칙을 저지른 선수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아도 되나, 다음 아웃 오브 플레이 때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주심은 책임 있는 태도를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는 팀 임원들에 대하여 경기장이나 그 주변에서 즉시 추방시키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심은 그가 목격하지 못한 사건을 관련된 부심의 충고에 따라 처리할 수 있

다

주심은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경기장 입장을 불허한다.

주심은 경기를 중단 후 재개 시킬 수 있다.

주심은 경기 전, 경기 도중, 경기 후에 발생한 기타 사건들과 선수 및 팀 임원에 대하여 어떤 징계 조치를 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기 보고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주심의 결정

경기와 연관된 사항에 대한 주심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주심은 경기를 재개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판정의 잘못을 자각하거나 부심의 조언에 따라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주심 관련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 사항

주심(또는 해당되는 부심 및 대기심)이 경기 규칙에 의거하여 내린 결정이나 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내린 결정은 다음과 같은 위해로 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선수나 임원 혹은 관중에 의한 부상

재산상의 손해

개인, 클럽, 기업, 협회, 이와 유사한 단체에 의한 기타 손실

위의 결정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경기장 및 주변의 상태 혹은 기후 상태에 따라 경기 진행 여부.

합당한 이유에 의한 경기 포기.

골 포스트, 크로스 바, 코너 포스트 및 볼을 비롯하여 경기에 사용되는 설비나 장비 상태에 관한 사항.

관중의 경기 방해나 관중석 내의 문제 발생 시 경기 중단 여부.

선수의 특정 복장이나 용구의 허용 여부.

부상 선수의 치료를 위한 경기장에서의 후송 여부.

주심의 책임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팀 임원, 경기장 직원, 안전 책임자, 사진기자, 기타 언론인 등을 비롯한 특정인들의 경기장 부근에서의 관전 여부.

경기 규칙에 의거하거나 경기를 주최하고 있는 대륙 연맹, 국가 협회, 연맹의 규칙 혹은 규정에 준하여 주심의 재량에 따라 내린 기타 결정.

대기심이 임명된 대회에서 그의 역할과 책임은 반드시 국제 축구 평의회가 승인한 지침에 따라야 하며, 이 지침은 규칙서에 제정되어 있다.

경기와 관련된 사실 보고에는 득점 여부 및 경기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6) 부심

(1) 임무

부심은 2명이 임명되며 그 임무는 주심의 판정에 복종하고 아래의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다.

볼 전체가 경기장을 넘어갔을 때

어느 편이 코너 킥, 골 킥, 드로우인을 할 권리가 있는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선수 교체를 요청했을 때

주심이 인식하지 못한 불법 행위나 기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칙이 일어났을 때 부심이 주심보다 더 가까이 위치했을 경우

(페널티 지역 내에서 반칙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와 같은 특정 사항 포함).

페널티킥을 할 때 킥이 이루어지기 전에 골키퍼가 앞쪽으로 움직였는지, 또는 볼이 완전히 골라인을 넘었는지 여부.

(2) 보조

부심은 주심이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는데 조력한다. 특히 9.15m 거리 통제를 돕기 위해 부심이 경기장 내에 들어갈 수 있다.

주심은 부당한 간섭이나 부당한 행위를 한 부심을 그 임무에서 해임시키고 해

당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7) 경기 시간

(1) 경기 시간

경기는 주심과 참가한 두 팀이 상호 동의했을 때를 제외하고 전·후반 45분씩 동등한 시간으로 계속된다.

경기 시간 변경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경기 개시 전에 그리고 대회 규정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예 : 조명이 불충분하여 전 후반을 각각 40분으로 제한한다)

(2) 하프 타임 휴식

선수는 하프 타임 때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하프 타임 휴식은 1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대회 규정에 하프 타임의 휴식 시간을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

하프 타임의 휴식 시간은 주심의 동의하에서만 변경될 수 있다.

(3) 허비된 시간의 공제

전·후반을 통하여 아래의 상황으로 인한 시간 허비는 경기 시간에 참작된다.

교체

선수의 부상정도 확인

부상 선수의 치료를 위한 경기장에서의 후송

시간 낭비

기타 다른 사유

허비된 시간을 참작하는 것은 주심의 재량이다.

(4) 페널티 킥

전·후반 또는 연장전의 종료 직전에 선언된 페널티 킥은, 그 킥이 행해지도록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

(5) 연장전

대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전-후반 똑같은 시간을 경기한다.

(6) 연기된 경기

대회 규정에 따로 명시되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연기된 경기는 재경기를 한다.

8) 경기개시와 재개

(1) 준비

토스에서 이긴 팀이 전반전에 공격할 진영을 결정한다.

토스에서 진 팀은 경기가 시작될 때에 킥오프를 할 수 있다.

토스에서 이긴 팀은 후반전 경기 시작 때에 킥오프를 한다.

양 팀은 후반전에 진영을 바꾸어 공격한다.

(2) 킥오프

킥오프는 경기를 개시하거나 재개하는 방법으로서 경기 시작 때, 득점이 이루어진 후, 후반전 경기 시작 때, 연장전 경기(연장전을 할 경우)의 전・후반 시작 때 등을 말한다.

킥오프에서의 직접 득점은 인정된다.

(3) 절차

모든 선수들은 자신의 진영에 위치한다.

킥오프를 하는 상대팀은 인 플레이될 때까지 볼에서 최소한 9.15m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볼은 센터 마크에 정지된 상태여야 한다.

주심은 신호를 한다.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면 인플레이이다.

키커는 다른 선수가 터치할 때까지 볼을 재차 터치하지 못한다.

득점이 이루어진 후에는 다른 팀에 의하여 킥오프를 하게 한다.

(4) 위반 및 처벌

만일 다른 경기자가 터치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편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킥오프를 시행하는 도중 기타 다른 위반이 있었다면 킥오프를 다시 한다.

(5) 드롭 볼

드롭 볼은 볼이 인 플레이일 때 경기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경기가 잠시 중단된 후 재개하는 방법이다.

플레이가 중단되었을 때 볼이 있던 위치에서 주심이 드롭 볼을 한다. 볼이 지면에 닿으면 인플레이이다.

볼이 지면에 닿기 전에 선수가 플레이했을 경우나, 볼이 지면에 닿은 후 선수에 의하여 플레이 되지 않고 경기장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다시 드롭 볼을 실시한다.

(6) 특별한 상황

골 에어리어 내에서 수비 팀에게 주어진 간접 프리킥은 골 에어리어 내 어느 지점에서나 한다.

골 에어리어 내에서 공격 팀에게 주어진 간접 프리킥은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라인과 평형 된 골 에어리어 선상에서 한다.

골 에어리어 내에서 경기가 잠시 중단된 후 드롭 볼로 경기를 재개할 때는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라인과 평행된 골 에어리어 선상에서 한다.

9) 인 / 아웃오브 플레이

(1) 볼의 인 플레이

다음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시간은 볼이 인 플레이된 상태다.

볼이 골포스트, 크로스 바 또는 코너 플랙 포스트에 맞고 튀어 경기장 안으로 되

돌아왔을 때

볼이 경기장에 있는 주심이나 부심에게 맞고 튀어 경기장 내로 되돌아왔을 때

(2) 볼의 아웃 오브 플레이

다음은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된 상태다.

볼 전체가 지면 또는 공중으로 터치라인이나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 갔을 때

주심에 의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10) 득점방법

(1) 득점

득점에 앞서 경기 규칙의 위반이 없고, 볼 전체가 크로스 바 아래와 양 골포스트 사이의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 갔을 때 득점이 된다.

(2) 승리팀

경기 중 더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승자가 된다.

만일 양 팀이 무득점이거나 동점일 때는 무승부이다.

(3) 대회 규정

무승부로 끝난 경기의 승자를 결정해야 할 경우, 대회 규정에 국제축구평의회가 승인한 다음의 방식들만 채택할 수 있다.

어웨이 골 우선 원칙

연장전

승부차기

국제축구평의회 결정 사항

오직 국제축구평의회가 승인하고, 이 규칙서에 규정된 승자 결정 절차만이 대회 규정에 사용될 수 있다.

11) 오프사이드

(1) 위치

선수가 그의 상대편 골라인으로부터 볼과 최종의 두 번째 상대편 선수보다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을 때 오프사이드가 된다.

그러나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는 반칙이 아니다.

아래의 경우 오프사이드 위치가 아니다.

선수가 자기 진영에 있을 때

최종에서 두 번째 상대편 선수와 동일선상에 있을 때

최종의 상대편 선수 두 명과 동일 선상에 있을 때

(2) 오프사이드 반칙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같은 팀 선수에 의하여 볼이 터치되거나 플레이된 순간에 주심의 견해로 플레이에 적극적으로 관련되었을 때에만 처벌한다. 즉 플레이에 간섭하거나, 상대편을 방해하거나, 그 위치에 있으면서 이득을 얻을 때이다.

(3) 오프사이드 반칙이 아닌 경우

만일 선수가 골킥, 스로우 인, 코너킥 다음의 상황에서 직접 볼을 받았을 때는 오프사이드 반칙이 아니다.

(4) 위반 및 처벌

오프사이드 반칙시 주심은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12) 반칙과 불법행위

반칙과 불법 행위는 다음에 따라 처벌한다.

(1) 직접 프리킥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조심성 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다음의 6개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경우,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상대를 차거나 차려고 했을 때

상대를 걸었거나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상대에게 뛰어 덤벼들었을 때

상대를 차지(charges)했을 때

상대를 때리거나 때리려고 했을 때

상대를 밀었을 때

또 선수가 다음의 4개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때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볼을 소유하고자 상대에게 태클을 하였으나 볼에 터치하기 전에 상대의 신체에 먼저 접촉되는 경우

상대를 잡았을 때

상대에게 침을 뱉었을 때

고의적으로 볼에 손을 댔을 때(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는 제외)

직접 프리킥은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행한다.

(2) 페널티 킥

인 플레이 중에 볼의 위치에 관계없이 선수가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만일 위의 10가지 반칙 중 한 가지를 범했다면 페널티킥을 부여한다.

(3) 간접 프리킥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가 다음 5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했을 경우, 상대팀에게 역시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손으로 볼을 다루고 있던 골키퍼가 볼을 손에서 놓기까지 6초의 시간이 초과했을 때

손으로 잡고 있던 볼을 방출시킨 후, 다른 경기자가 터치하기 전에 그의 손으

로 볼을 다시 터치했을 때

팀 동료가 고의적으로 킥하여 준 볼을 손으로 터치했을 때

팀 동료가 행한 드로우 인을 직접 받은 후 손으로 볼을 터치했을 때

시간 낭비

또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다음의 반칙을 범했을 때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위험한 태도로 플레이할 때

상대의 진행을 방해할 때

손으로 볼을 방출시키려는 골키퍼를 방해할 때

규칙 12에 언급되지 않은 어떤 위반이 발생하여 선수에게 경고를 주거나 퇴장시키기 위하여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간접 프리킥을 행한다.

(4) 징계 및 처벌

경기 중인 선수, 교체 예정 선수, 교체된 선수에게만 엘로카드(경고) 또는 레드카드(퇴장)를 제시할 수 있다.

(5) 경고성 반칙

다음의 7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하였을 경우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반 스포츠적 행위(Unsporting Behaviour)를 한 경우

말 또는 행동으로 항의한 경우

지속적으로 경기 규칙을 위반한 경우

경기 재개를 지연시킨 경우

프리킥 또는 코너킥으로 경기를 재개할 때 요구된 거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주심의 허가 없이 입장 또는 재 입장한 경우

주심의 허가 없이 고의적으로 경기장을 떠난 경우

(6) 퇴장성 반칙

선수가 다음의 7가지 반칙 중 어느 것을 범하였을 경우 레드카드를 보여 퇴장

조치한다.

심한 반칙 플레이를 한 경우

난폭한 행위를 한 경우

상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은 경우

고의적으로 볼을 핸들링 하여 상대팀의 득점 또는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시킨 경우(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가 골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을 때 프리킥 또는 페널티 킥으로 처벌하여야 할 반칙을 하여 명백한 득점 기회를 저지시킨 경우

공격적, 모욕적 또는 욕설적인 언어나 행동을 한 경우

한 경기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은 경우

퇴장당한 선수는 경기장 주변과 기술지역에서 반드시 떠나야 한다.

반칙, 불법행위에 관한 국제 축구 평의회 결정 사항

선수가 경기장의 안 또는 밖에서 상대편, 팀 동료, 주심, 부심 기타 다른 사람에게 경고성 반칙 또는 퇴장성 반칙을 범하였다면 반칙의 종료에 따라 처벌한다.

골키퍼가 손 또는 팔의 어떤 부분으로든 볼을 터치했을 때 볼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한다.

볼의 소유는 골키퍼가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것을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주심의 견해로 골키퍼가 볼을 잡으려다 부득이 리바운드된 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규칙 12에 따라 선수가 자기편의 골키퍼에게 머리나 가슴 또는 무릎을 이용하여 자기편 골키퍼에게 볼을 패스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심의 견해로 볼이 인플레이일 때 고의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규칙을 역이용하려는 선수는 반 스포츠적 행위를 한 것이다. 그에게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하고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선수가 프리킥을 할 때 고의적인 속임수를 써서 규칙을 역이용하려는 것은 반

스포츠적 행위이므로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한다. 프리킥은 다시 한다.

위와 같은 상황 뒤에 골키퍼가 손으로 볼을 터치했건 하지 않았건 상관이 없다. 이 반칙은 선수가 경기 규칙 12조의 정신과 내용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뒤에서의 태클은 심한 반칙 플레이로 처벌하여야 한다.

필드내의 어느 곳이든지 심판을 속이려는 목적의 어떤 행위도 반 스포츠적 행위로 처벌하여야 한다.

득점 후 축하 행위를 한때, 상의를 벗는 선수는 반 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주어야 한다.

13) 프리킥

(1) 프리킥의 종류

프리킥은 직접 프리킥과 간접 프리킥이 있다.

두 가지 모두 킥이 이루어질 때가지 볼은 정지되어 있어야 하고, 키커는 다른 경기자에 의해 터치될 때까지 볼을 재차 터치하지 못한다.

(2) 직접 프리킥

직접 프리킥은 킥한 볼이 상대의 골에 직접 들어가도 득점이 된다.

직접 프리킥은 킥한 볼이 자기 팀의 골에 직접 들어가면 상대팀에게 코너킥을 부여한다.

(3) 간접 프리킥

주심은 한 팔을 머리 위까지 들어 올려 간접 프리킥임을 지적한다. 킥한 볼을 다른 선수가 터치하거나 아웃 오브 플레이될 때까지 팔을 들고 있어야 한다.

볼이 골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경기자에 터치된 경우에는 득점이 된다.

킥한 볼이 상대편의 골로 직접 들어가면 상대팀의 골킥으로 판정한다.

킥한 볼이 자기 팀의 골에 직접 들어가면 상대팀의 코너킥으로 판정한다.

(4) 프리킥 때의 위치

수비 팀이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 프리킥을 얻었을 때

모든 상대편 선수는 볼에서 최소한 9.15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모든 상대편 선수는 볼이 인 플레이될 때까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킥한 볼이 직접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면 인플레이다.

골 에어리어 내에서의 프리킥은 골 에어리어 어느 지점에서나 할 수 있다.

공격 팀이 상대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간접 프리킥을 얻었을 때

상대편은 자신의 양 골 포스트 사이의 골라인에 서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인플레이될 때까지 볼에서 최소한 9.15m 떨어져 있어야 한다.

킥한 볼이 움직이면 인 플레이이다.

골 에어리어 내에서의 프리킥은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라인과 평행된 골 에어리어 선상에서 킥을 한다.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의 프리킥을 할 때

상대편은 인플레이 될 때까지 볼에서 최소한 9.15m 떨어져 있어야 한다.

킥한 볼이 움직이면 인플레이다.

프리킥은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킥을 한다.

(5) 위반 및 처벌

만일 프리킥을 할 때 상대가 필수적인 거리보다 볼에 가까이 있다면 킥을 다시 한다.

만일 수비 팀이 자기 진영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프리킥을 할 때 킥한 볼이 인 플레이가 되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

골키퍼 이외의 선수가 프리 킥할 때

만약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으로 판

정한다.

만일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으로 핸들링을 범하였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만일 키커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반을 범하였다면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골키퍼가 프리킥을 할때

만약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고의적으로 볼에 손을 댔을 때, 위반이 발생한 곳이 킥한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이라면 위반이 일어난 곳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위반이 발생한 곳이 킥한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라면 위반이 일어난 곳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4) 페널티킥

(1) 페널티킥

볼이 인 플레이일 때 자기측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직접 프리킥에 해당되는 10가지 반칙 중 하나를 범하였다면 상대팀에게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페널티 킥에서 직접 득점이 된다.

경기 시간 종료(전・후반, 연장 전・후반) 직전에 선언한 페널티 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기 시간을 연장해야 하다.

(2) 볼과 선수들의 위치

볼은 페널티 마크에 있어야 한다.

페널티 킥을 하는 선수가 정당한지 확인해야 한다.

수비 측 골키퍼는 킥이 될 때까지 키커를 향하여 골포스트 사이의 골라인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키커 이외의 다른 선수들은 경기장 내 페널티 마크로부터 뒤쪽으로 최소한 9.15m 떨어진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있어야 한다.

(3) 주심

주심은 규칙에 따라 선수들이 위치를 지킬 때까지 페널티 킥을 하라는 신호를 하지 않는다.

페널티 킥이 완료되었을 때 판정한다.

(4) 절차

키커는 페널티 킥을 앞쪽으로 한다.

키커는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재차 플레이할 수 없다.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면 인 플레이이다.

경기 시간 종료(전・후반, 연장전의 전・후반) 직전에 선언된 페널티 킥을 진행 또는 다시 차기 위하여 시간이 연장된 경우, 만일 볼이 양 골 포스트 사이와 크로스 바 아래로 지나가기 전에 볼이 양 골 포스트와 크로스 바 또는 골키퍼 등 복합적으로 터치된 후 골인되었다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5) 위반 / 처벌

만일 주심이 페널티 킥을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볼이 인 플레이되기 전에 다음 상황 중 한 가지가 발생했다면 :

페널티 킥을 하는 선수가 경기 규칙을 위반 했을 때

주심은 킥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킥을 다시 한다.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하지 않는다.

골키퍼가 경기 규칙을 위반했을 때

주심은 일단 킥을 하도록 허용한다.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

키커의 동료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들어왔거나, 페널티 마크보다 앞쪽으로 움직였거나, 페널티 마크에서 9.15m내에 있을 경우

주심은 킥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킥을 다시 한다.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하지 않는다.

만일 볼이 골키퍼나 크로스 바 또는 골포스트에 맞고 튀어나온 것을 침입한 선수가 터치했을 경우,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수비 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골키퍼의 동료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들어왔거나, 페널티 마크보다 앞쪽으로 움직였거나, 페널티 마크에서 9.15m내에 있을 경우

주심은 킥을 진행하도록 허용한다.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볼이 골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

공격, 수비 양팀 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위반했다면 킥을 다시 한다.

페널티킥을 한 후라면 :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 사용 제외)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으로 핸들링을 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킥한 볼이 앞쪽으로 움직이는 도중 외부 작용 물에 터치됐다면 킥을 다시 한다.

킥한 볼이 골키퍼, 크로스 바, 골포스트 등에 맞고 경기장 내로 들어온 다음 외부 작용 물에 터치되었다면 주심은 경기를 중단한 뒤, 외부 작용 물에 터치된 지점에서 드롭 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15) 스로인

(1) 규칙

스로인은 플레이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스로인에서 직접 득점은 될 수 없다.

스로인의 판정은 지면 또는 공중으로 볼 전체가 터치라인을 넘어갔을 때 터치라인을 넘어간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터치된 선수의 상대팀이 한다.

(2) 절차

볼을 스로인 하는 선수는 경기장을 향하고 발이 터치라인 위 또는 터치라인 밖의 지면에 있어야 하며 두 손을 이용하여 머리 뒤에서 넘겨져 볼을 던진다.

스로인을 한 선수는 다른 선수에 의해 볼이 터치될 때까지 터치하면 안 된다.

볼이 경기장에 들어온 즉시 인 플레이가 된다.

(3) 위반 및 처벌

골키퍼 이외의 선수가 스로인을 하는 경우,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 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으로 핸들링을 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에게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이 핸들링 반칙이 스로인하는 선수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라면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골키퍼가 스로인하는 경우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 사용),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볼이 인플레이 된 후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인 핸들링을 했다면, 만일 위반이 일어난 지점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일 경우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만일 위반이 발생한 지점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경우,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만일 스로인하는 선수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괴롭히는 상대 선수에게는 반스포츠적 행위이므로 옐로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이 규칙의 기타 다른 위반은 상대팀 선수에게 스로인을 부여한다.

16) 골킥

(1) 규칙

골킥은 플레이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골킥에서 직접 득점이 된다(단, 상대팀에 대해서만).

골킥의 판정은 공격 팀이 마지막으로 터치한 볼이 규칙 10에 따른 득점 상황이 아닌 경우로, 지상이나 공중으로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갔을 때 한다.

(2) 절차

수비 팀 경기자가 골 에어리어 내 어느 지점에서나 킥을 한다.

볼이 인 플레이될 때까지 상대팀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위치해야 한다.

키커는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까지 재차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

킥한 볼이 직접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면 인 플레이이다.

(3) 위반 및 처벌

킥한 볼이 직접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킥을 다시 한다.

골키퍼 이외의 경기자가 골킥을 할 경우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볼을 터치했다면(손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인 핸들링 범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하고,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경우 상대팀의 페널티 킥으로 판정한다.

골키퍼가 골킥을 할 경우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다시 볼을 터치했다면(손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

다.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경기자에 터치되기 전에 고의적인 핸들링을 범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곳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일 경우,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위반이 일어난 곳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일 경우에는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이 규칙의 기타 다른 위반은 킥을 다시 한다.

17) 코너킥

(1) 규칙

코너킥은 플레이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코너킥에서 직접 득점이 된다(단, 상대팀에 대해서만).

코너킥의 판정은 수비 팀이 마지막으로 터치한 볼이 규칙 10조에 따른 득점 상황이 아닌 경우로 지면이나 공중으로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갔을 때 한다.

(2) 절차

가장 가까운 코너 플랙의 아크 안에 볼이 있어야 하며

코너 플랙 포스트를 옮기지 않고

인 플레이될 때까지 상대편은 볼에서 9.15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공격 팀 선수가 킥을 하고

킥한 볼이 움직이면 인 플레이이다.

키커는 볼이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재차 터치하지 못한다.

(3) 위반 및 처벌

골키퍼 이외의 선수가 코너킥을 할 경우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재차 터치했다면 (손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키커가 고의적인 핸들링을

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 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하며, 키커의 페널티에 어리어 내에서 위반이 일어났다면 페널티킥으로 판정한다.

골키퍼가 코너킥을 할 경우 :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다시

볼을 터치 했다면(손사용 제외)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볼이 인 플레이된 후 다른 선수에 의해 터치되기 전에 골키퍼가 고의적으로 핸들링 했다면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위반이 발생했을 때에는,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골키퍼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위반이 발생했다면, 위반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판정한다.

기타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킥을 다시 한다.

*5. 2002*년 이후 개정되고 수정된 경기규칙

*2004*년 *FIFA* 창립 *100*주년

2004년 2월 28일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다음 사항들을 결정했다.

'연장전의 골든골·실버골 제도'를 폐지하고 유로2004대회 기간 중인 7월 1일부터 '연장전 후 페널티킥 승부방식'을 부활시킨다.

골든골 제도는 무승부 결과를 피하기 위해 독일이 체코를 2-1로 꺾었던 지난 96년 유럽선수권대회 결승전에 처음 도입됐다.

국제친선경기에서의 교체인원도 2005년부터 6명으로 제한한다. 현재는 경기 전 팀 매니저미팅에서 양국의 합의에 의해 자유롭게 교체인원을 정해왔다.

골을 넣은 선수가 골 세리 머니를 하면서 셔츠를 벗으면 제재를 받는다.

인조잔디경기장도 FIFA공식경기에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이미 인조잔디구

장에서의 경기는 2003년 핀란드에서 열린 U-17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결승전을 포함한 10경기가 시험적으로 치러진 바 있다. FIFA는 2001년부터 인조잔디 실용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3년여 만인 2004년 2월 현재 15개 제조업체의 75개 제품에 인증(FIFA Recommended)을 내줬다.

7월 1일-2004년 2월 국제축구평의회(IFAB)에서 개정된 '골 뒤풀이로 상의 탈의시 경고' '골든골, 실버골 폐지'등 몇 가지 경기 규칙이 7월부터 모든 국제·국내대회에 적용된다.

골세리머니 제한-선수가 골을 넣고 유니폼 상의를 벗는 것은 과도한 기쁨의 표시로서 '비스포츠적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반드시 옐로카드를 주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은 상의 탈의의 범위를 가슴을 드러낸 채 얼굴에 뒤집어쓰는 데까지 확대 적용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상의를 머리까지 올리지 않고 가슴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경고를 받지 않는다.

골든골·실버골 제도 폐지-유로2004를 끝으로 연장전에 적용되던 골든골·실버골 제도가 사라진다. FIFA는 전·후반이 무승부로 끝나면 연장전에서 먼저 골을 넣는 팀이 승리하고 바로 경기를 종료하는 골든골 제도와 한쪽 팀이 먼저 득점하더라도 연장 전반이나 후반이 끝나야 승부가 갈리는 실버골 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연장전에서 골을 먼저 넣어도 전·후반 30분을 모두 치른다. 연장전까지 승부가 나지 않으면 승부차기로 승패를 결정한다.

A매치 친선경기 선수교체 6명-종전에는 친선 A매치의 선수 교체인원이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6명으로 제한된다.

인조잔디구장도 국제대회 가능-FIFA가 정하는 기준을 갖추면 인조잔디구장에서도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게 된다.

스마트볼 제도

'전자볼' 사용 검토 2005년 1월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3선 도전을 선언하면서 마이크로칩을 볼에 장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이후 논

의가 계속되었으며 이런 주장을 (주)아디다스가 개발하면서 2005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페루, U-18) 대회에 시범 사용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수정 보완할 것이며, UEFA도 유럽선수권대회에도 적극 활용 할 방침이며 FIFA도 이제도를 이번 2006년 독일월드컵부터 채택 할 예정이다.

축구규칙을 다루는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오는 2월 25일 웨일스에서 회의를 열어 전자볼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독일 분데스리가팀 뉘른베르크는 이에 앞서 23일 연습경기에서 이 볼을 실험해볼 계획이다.

6초 이상 공 갖고 있으면 '골키퍼 지연행위'

국제축구연맹(FIFA)은 매년 경기규칙을 손질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의 결정에 따라 최근 대한축구협회에 일부 규칙개정 내용을 통보되었다. 심판 및 일선 지도자들이 인지하는 2000년 7월1일부터 국내무대에 적용된다. 먼저 골키퍼의 지연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더 이상 공을 갖고 걷는 발자국수가 아니라 시간 (6초 이상)으로 확정된 게 가장 주목 할만 한 변화. 즉 GK가 공을 가지고 네 발자국 이상 움직이는 게 불법이 아니고 6초 이내에는 몇 발자국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심판의 역할도 강화됐다. 부심은 세트플레이때 필드에 들어가 주심이 9.15m의 거리를 통제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기심도 엉뚱한 선수가 경고를 받거나 두 번의 옐로카드를 받았는데도 선수가 퇴장당하지 않는 경우, 또 부심의 시야 밖에서 난폭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주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번 규칙개정과는 관계없지만 프로축구무대에서는 올해부터 유럽에서 시행중인 드롭볼제를 도입했다. 주심이 선수부상 등을 이유로 경기를 잠시 중단 시킨 뒤 다시 재개할 때 양 팀 선수를 모아서 볼을 다투게 하지 않고 당초 볼 을 지니고 있던 팀의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 주어 경기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함이다.

2005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축구 규정

스로인할 때 상대편 선수는 최소한 2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상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뒤에서의 태클은 심한 반칙으로 처벌해야 한다'에서 뒤에서의 를 삭제한다.

오프사이드는 '머리, 몸, 발의 어느 부분이라도 상대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을 때"로 구체화했다.

프리킥이나 스로인, 코너킥이 선언됐을 때 상대 선수가 고의로 공에 손을 대는 경우와 선수가 자신의 팀이 득점한 후에 공을 취하는 경우 등은 경기의 재개를 지연시키는 비신사적 행위로 간주해 옐로카드가 주어진다.

골든골/실버골

골든골(Golden goal) : 전 후반 90분 경기에서 승부가 가려지지 않아 연장전에서 먼저 골을 넣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되는 제도에서의 골을 말한다. 도입 초기의 이름은 '서든 데스 골(Sudden Death Goal)'이라고 불렀으나 뉘앙스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골든골로 바꿨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993년 호주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처음으로 골든골(서든데스) 제도를 시험 도입했고, A매치로는 96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 공식 적용해 독일이 2-1로 체코에 이겨 우승했다. 이 제도가 월드컵에 채택된 것은 98년 프랑스대회부터였다. 골든골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연장전에서 몇 골이 터지든 전-후반 각 15분씩 총 30분을 다 채웠다. 그러나 연장전에서 소극적이고 재미없는 경기를 하며 승부차기를 노리는 경우가 종종 나왔다. 이에 FIFA는 선수들의 체력 소모를 줄이고 더 공격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유도하기 위해 골든골 제도를 도입했다.

성인 국가대표팀 간 국제경기에서의 1호 골든골은 1996년 6월 30일 유럽축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올리버 비어호프(Oliver Bierhoff)가 연장 전반 5분만에 기록해 독일이 체코에 2-1 역전승을 거뒀다. 월드컵에서의 골든골 1호는 98프랑스월드컵 16강전에서 프랑스의 로랑 블랑이 연장 후반 8분에 넣은 골로 (파라과이에 1-0승) 기록했다.

이후 '골을 허용하면 곧바로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감독이나 선수들이 승부차기까지 가기위해 수비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거나 '한 순간에 승부가 가려지기 때문에 승부차기보다 더 잔인하다'는 등의 비판이 일어 골든골 또한 한계점을 들어냈다. 승부차기를 지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골든골 제도 또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골든골 제도가 비판을 받으면서 '실버골' 제도가 생겨났다.(실버골 참조)

그러다가 국제축구평의회(IFAB-Internationale Football Association Board)는 2004년 2월 28일 '연장전의 골든골・실버골 제도'를 유로2004대회 이후에 폐지하고 기존의 '연장전 후 페널티킥 승부방식'을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골든골은 1993년 호주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부터 지난해 12월 세계청소년대회까지 월드컵과 올림픽, 여자월드컵, 세계청소년대회 등 각급 세계대회에서 모두 33골이 기록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2004년 3월 홈페이지에 규정 개정으로 사라지게 되는 '골든골'제를 회고하면서 안정환이 2002월드컵 이탈리아 전에서 넣은 골든골을 포함한 '8대 골든골'을 선정하였다

실버골(Silver Goal) : 실버골제도는 연장 전반이나 후반에 어느 한 팀이 골을 넣더라도 바로 경기가 종료되지 않고, 연장 전반 혹은 후반의 종료까지 경기가 지속되는 방식이다. 이는 1차 연장, 2차 연장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승부차기까지 가지는 않되 연장전에서도 보다 공격적으로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셈이다. 실버골 제도는 유럽축구연맹(UEFA)이 2003년 5월 21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벌어진 2003 UEFA 컵 결승전(셀틱 2 : 3 포르투)에 처음으로 시험 적용했다. 이 경기에서 포르투갈의 포르투는 스코틀랜드의 셀틱과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연장 후반 10분, 실비아 데를레이의 실버골로 우승을 차지했다. 그 후 국제축구평의회(IFAB-Internationale Football Association Board)는 2004년 2월 28일 '연장전의 골든골・실버골 제도'를 유로2004대회 이후에 폐지하고 기존의 '연장

전 후 페널티킥 승부방식’을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FIFA*, 귀화 선수 *A*매치 출전 제동**

국제축구연맹(FIFA)이 연고도 없는 나라에 귀화하는 선수들 에게 제동을 걸었다.

FIFA 비상위원회는 2004년 3월 17일 특정 국가에 귀화하는 선수의 경우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해당 국가 출신이거나 2년 이상 그 나라에 거주했다는 사실 등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귀화했더라도 A매치에 출전할 수 없도록 했다.

FIFA의 이번 조치는 독일 분데스리가 득점 선두인 아일톤(베르더 브레멘)과 데데, 레안드로(이상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등 브라질 출신 선수 3명이 최근 중동의 부국 카타르로 귀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제프 블래터 FIFA 회장은 성명에서 "귀화는 해당 국가와의 명백한 연관성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이번 조치를 오는 5월 FIFA 총회에 상정해 앞으로 무분별한 선수 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카타르는 2006독일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오일 달러'를 앞세워 브라질 출신 선수들의 귀화를 추진했고 아일톤 등은 귀화가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러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그 동안 일본으로 국적을 옮긴 올림픽대표팀 중앙 수비수 툴리오 등 브라질 출신 선수들의 귀화 사례와 맞물려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야간경기

세계 최초의 야간경기는 1878년 10월 14일 잉글랜드 셰필드 브래멀 레인이라는 곳에서 있었다. 경기장 네 구석에 30피트(10.44m) 높이의 단을 세우고 그 위에 8000캔들(양초 8000개의 밝기)의 조명을 켜놓고 경기를 했다. 양쪽 골대 뒤에 한 대씩 설치한 시멘스 사의 발전기로 불을 밝혔다. 이 경기의 2만여 명의 기록적인 관중은 야간경기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였

다. 그러나 FA는 이 경기를 공식경기로 인정하지 않았다. FA가 야간경기를 인정한 것은 1887년이었다.

최초의 야간 국제경기는 1951년 잉글랜드의 아스날과 이스라엘 하포엘팀의 경기였으며, 프로리그 최초의 공식 야간경기는 1956년 잉글랜드의 포츠마우스-뉴캐슬전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조명시설이 세워진 것은 1967년 서울운동장(현 동대문운동장) 조명탑이었다. 그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메르데카배 국제축구대회에서 버마와 공동우승하고 귀국한 선수단이 청와대로 인사하러간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축하선물로 준 것이었다.

인조잔디

FIFA가 주최하는 국제 축구대회 역사 상 처음으로 인조잔디에서 공식경기가 벌어진 것은 2003년 8월 13일~30일까지 핀란드에서 열린 17세 이하 세계청소년축구 선수권대회에서다.

FIFA는 '골프로그램(Goal development programme)'의 일환으로 헬싱키 톨리(Toolo) 스타디움에 인조잔디를 까는 데 250,000 Euros를 지원했다. 이 경기장에서는 A조의 리그 6경기를 비롯해 결승전까지 10경기가 치러졌다.

FIFA는 1995년부터 축구경기의 각종 프로그램들을 보완하면서 점차 증가하는 인조잔디에 대한 종전의 포괄적인 개념을 품질 개념(The FIFA Quality Concept)으로 보다 구체화한 내용으로 2001년부터 인조잔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FIFA의 '품질 개념'은 축구에 최상의 인조잔디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국제축구연맹은 2002년 2월 28일부터 축구장 인조잔디의 표면 등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 FIFA 품질인증표시(The FIFA Recommended seal)를 인조 잔디 제품에 부착했고, 2003년 5월 현재 전 세계에 약 40개의 경기장이 FIFA의 인증을 받은 인조잔디를 설치했다. 이 경기장들은 FIFA가 인정하는 공식 국제경기를 유치할 자격을 인정받은 것이다.

인조잔디는 이미 2002월드컵 카리브 지역예선에서 사용된 바 있어 국제 경

기에서 공인되기도 했다. 그래도 아직은 대부분의 선수들은 천연잔디에서의 경기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 다만 기후나 재정 문제로 천연잔디를 유지할 수 없는 나라들은 향상된 인조잔디를 도입하는 것이 수월한 방법이긴 하다. 그래서 상당수에 이르는 나라들이 기술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질 좋은 인조잔디를 축구장에 깔았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축구평의회(The International Football Association Board)도 2003년 3월 15일 회의에서 FIFA의 인조 잔디 프로그램을 인정했다.

국제축구평의회는 2004년 2월 28일 회의에서 2005년부터 FIFA공식경기에 인조잔디경기장 사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축구경기 규칙의 시대별 개칙을 중심으로 시대 구분에 따라 그 변천과정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경기규칙의 변천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축구경기 규칙이 어떠한 형태로 변천되었으며, 경기규정 변천과정에서 나타나는 축구사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시대구분은 FIFA 설립 전과 FIFA 설립 후로 나누었다. 1863년 FA 협회에서 경기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의 경기규칙을 살펴보았고, 1863년에서 1903년까지 런던에서 11개의 풋볼 클럽 대표들이 FA 의 경기규칙을 살펴보았다, 1904년에서 1929년까지 FIFA가 결성되어 행해진 경기규칙을 살펴보고, 1930년부터 2002년까지 FIFA의 주관으로 올림픽 중간 해에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의 경기규칙을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2002년 이후의 경기규칙도 함께 살펴보았다.

FIFA 설립 전(초기～1903년)의 축구는 현재와 같은 스포츠의 개념이 아닌 놀이의 개념이었으며, 축구협회가 창립되기 이전에는 각 학교와 사회에서 주로 공터나 장소가 넓은 곳에서 행하던 놀이의 한 종류였으므로 인원의 제한이나 경기장의 크기 그리고 심판의 역할 역시 제 3자의 조정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경기규칙 또한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아니하였고, 자율적으로 행하여졌다.

1863년 FA가 다소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던 이 놀이에 일정한 형태와 질서와 같은 스포츠정신을 불어넣는 14개조의 보다 잘 정리된 규칙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경기규칙의 제도화는 심판의 권한을 확대되는 등 경기방식을 제도화하는 과도기적 시기였으므로, 모든 축구 경기규정의 변화가

활발하여 축구라는 놀이가 스포츠 경기화로 전환되는 시발점이 된 시기였다. 그리고 골킥과 코너킥이 도입되었고, 심판의 권한이 예전에는 양 팀의 의견 조정 역할에만 한정되었던 것이 퇴장, 페널티킥, 프리킥을 선언하는 등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는 등 축구 경기규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서 축구 경기규칙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갔다.

FIFA 설립 후(1904년~2002년)는 1904년 국제축구연맹 (FIFA)이 창립되었으며, 1908 년에는 런던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공식적인 국제경기가 이루어졌다. 그 이후 1913년에 FIFA는 국제축구협회평의회(IFAB)에 가입하여 축구의 영향력을 키워나갔다. 1927년 아스날 대 세필드 유나이티드 경기가 최초로 라디오 중계방송 되면서 축구가 세계화로 더욱 더 빠르게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이 시기의 경기규칙은 GK의 손사용을 페널티 에어리어로 제한하고, 1925년 오프사이드규칙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등의 세부적인 규정까지도 제도화되어 가는 시기였다.

제1회 월드컵축구대회가 우루과이대회(1939년)이후 2002년 한・일 월드컵까지 모두 17회의 대회를 거쳐 오면서, 스포츠로서 그 제도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시기이다. 그리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경기자의 장비인 축구화와 보호대, 축구공의 발달과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축구의 세계화는 더욱더 확대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각선 심판법이 적용되고 선심을 부심으로 변경하여 부심도 경기에 참여하는 등 심판제도의 강화로 인해 비신사적인 행위나 축구경기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것을 규제하였다. 또 레드카드와 옐로우 카드 도입, 1991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여자월드컵이 개최되었으며, 1997년 3월 1일에는 60년 만에 국제축구평의회 연례회의에서 오프사이드, 백패스, GK의 4보, 선수교체, 킥오프와 골킥 직접 골 인정 등 일부 규칙을 개정하면서 영어로 10,532개에 달하던 단어를 7,484단어로 30%나 줄였다. 스코틀랜드의 죠지 커밍(George Cummuing)이 책임자로 2년여에 걸친 연구와

정리 작업 끝에 마무리된 이 개정규칙은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밖에도 2002년 월드컵에서는 '할리우드 액션' 강력 제재, 경고와 퇴장 등에 벌금 부과, 우승국에 다음 대회 본선 자동출전권을 주는 제도를 없애기로 하는 등 축구 경기규칙의 변화가 가속화되었다. 2002년 이후 많은 경기규칙이 개정되어 수정되었다.

FIFA 창립 100주년이었던 2004년에는 '골 뒤풀이로 상의 탈의시 경고' '골든골, 실버골 폐지' 'A매치 친선경기 선수교체 6명' '인조잔디구장도 국제대회 가능' '스마트볼 제도' '6초이상 공 갖고 있으면 골키퍼 지연행위' 등 몇 가지 경기 규칙이 개정되고 수정되면서 축구가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① 스로인할 때 상대편 선수는 최소한 2m 이상 떨어져야 한다. ② '상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뒤에서의 태클은 심한 반칙으로 처벌해야 한다.'에서 뒤에서의 를 삭제한다. ③ 프리킥이나 스로인, 코너킥이 선언됐을 때 상대 선수가 고의로 공에 손을 대는 경우와 선수가 자신의 팀이 득점한 후에 공을 취하는 경우 등은 경기의 재개를 지연시키는 비신사적 행위로 간주해 옐로카드가 주어진다. 의 경기규칙 수정은 축구에서 선수를 먼저 보호하고, 빠른 경기진행을 위해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제1회 대회에서는 13개국이 참가하였지만, 프랑스 월드컵이 끝난 1998년까지의 FIFA 회원국은 203개에 달하고 전 세계의 등록 선수는 무려2억 5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 축구는 이제 단순한 스포츠에 그치지 않고 세계를 하나로 묶는 평화와 우호의 제전으로 굳어졌다.

이러한 축구경기 규칙의 변천과정은 외적으로는 놀이의 성격에서 스포츠가 경기화 되어가는 과정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으며, 경기규칙의 제도화가 국제적 경기로 변환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왔다. 관중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공격적인 축구경기를 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올림픽과 버금가는 월드컵 축구라는 대회를 창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종목의 발전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승리를 위한 경기규칙의 변화가 아닌 관중과 선수를 위한 경기규칙의 변화야말로 축구를 진정한 스포츠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축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인기에 휩싸인 무분별한 경기 규칙 개정보다는 축구가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축구가 팬들로부터 영원히 사랑 받을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다.

2. 제언

1863년 축구가 설립되었을 때부터 FIFA 설립 후까지 축구는 새로운 경기규칙을 개정하고 만들면서 경기수준이나 관람수준까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단일종목으로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로 거듭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경기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다. 축구가 경기자체보다 축구에 관한 포괄적인 것들을 개정된 경기규칙을 통해 얼마나 발전되고 입지가 더욱 굳어지느냐에 따라서 축구로 인한 마케팅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축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참고 문헌

강권구(2000). 태권도경기의 시설 및 용구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강충웅(1985). 태권도경기 규칙개선에 관한 고찰, 경남대학교 대학원

권관배(1998). 태권도 수련복의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 용인대학교 대학원.

김형원(1995). 유도경기장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남 용(1985). 축구교본, 서울 : 일신서적공사.

대한축구협회 경기규칙서.(2001, 2002, 2004).

문경대(1983). 태권도 품세 변천에 관한 고찰,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두균(1989). 축구 Instep Long Kick의 운동학적 분석, 경희 대학교 대학원.

박점수(1979). 농구경기 규정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장평, 유건직(1998). 축구경기규칙 중 오프사이드룰의 변천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학사 학위논문, 강원대학교

송용준(1999). 유도경기의 시설 및 용구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스포츠서울(1986). www.sportsseoul.com(1986. 5.30)

이석운(1990). 축구경기의 득점상황과 득점시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윤형근(1980). 축구 골키퍼의 특성에 관한 실태 조사연구. 중앙대.

장재근(1987). 축구선수의 경기 전 심리적 불안에 관한 연구, 건국 대학교 대학원.

정동권(1998). 검도본의 변천에 따른 본질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축구대사전(1973). 서울 : 경문관.

최영택(1986). 축구선수의 스포츠사회화에 관한 조사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한창효(2000). 태권도 경기규칙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 용인대학교 대학원.

인터넷 자료 활용

http://www.fifa.com

http://www.kfa.co.kr

http://www.atoms.pe.kr/main.htm

http://www.pkmsoccer.pe.kr/